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호프 프리퍼드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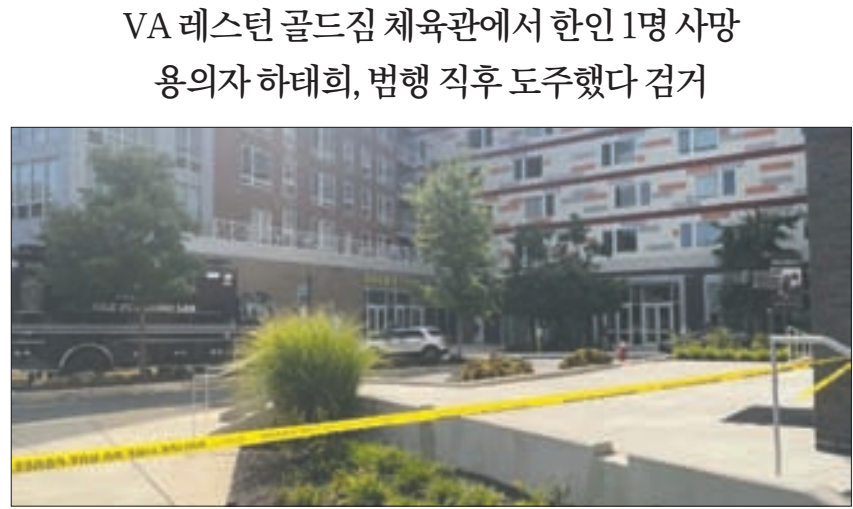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응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낮 헬스장서 한인 간 총격 살인사건 발생 ‘충격’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레스턴 지역 골드짐(Gold's Gym) 체육관에서 한인 남성이 다른 한인 남성을 총격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경 레스턴 선라이즈 벨리 로드 선상에 위치한 골드 짐에서 한인 하태희(영어명 스티브, 43) 씨가 또다른 한인남성 최형준(31) 씨를 총기로 살해한 후 도주했다. 용의자는 총격 후 곧바로 도로로 레스턴 파크웨이 방면으로 도주했다가 8시간 만에 검거됐다. 피해자는 상체에 최소 두발 이상의 총격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용의자는 피해자의 상복부에 두발 이상의 총격을 가했으나 다른 사람에게 총격을 가하지는 않았다. 당국은 용의자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총기난사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한명만을 노린 타겟 범주로 파악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레스턴 소재 '골드 짐(Gold's Gym)'



용의자 하태희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 제공]

경찰은 “용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운동 중이고 용의자가 피해자에게 다가와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사건 직후 경찰은 헬기와 K-9 경찰견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이다가 밤늦게 모처에서 하 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와 피해자가 면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범행 직전에 어떤 다툼이 있었는지, 기존의 갈등이 계획 살인으로 이어졌는지 등의 여부도 밝혀지지 않았다.

습을 본 후 본능적으로 바깥으로 달아났는데,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난무했다”고 전했다. 경찰당국이 골드짐 체육관에서 확보한 동영상에는 총격을 당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당국은 용의자 하 씨에게 총기 사용과 2급 살인혐의 등을 적용했다. 살인사건의 경우 체포와 함께 2급 살인혐의를 우선 적용한 후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고려한 후 1급 살인혐의로 옮겨갈 수 있다. 현재 용의자 하 씨는 페어팩스 카운티 구치소에 구금돼 있으며 보석금 재판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다. 당국에서는 피해자 최씨의 가족들을 돕기 위해 전문가를 파견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은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제보(703-246-7800)를 당부했다. 김옥재 기자

‘청년층 일자리’ 1년새 10만개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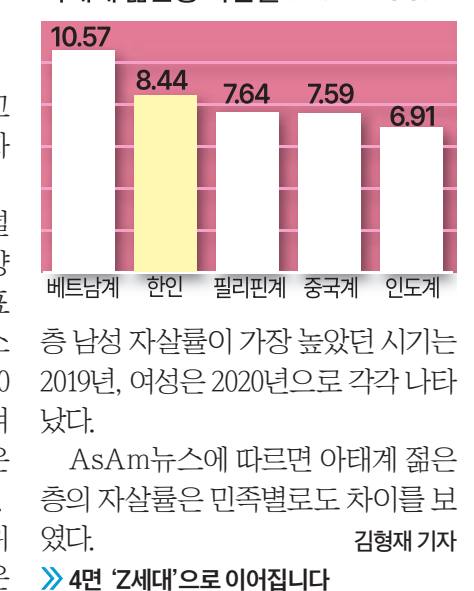
1분기 전체 일자리 소폭 늘었지만 20대와 40대 통계는 최대 폭 감소
지난 1분기에 20대 이하 청년층 일자리가 처음으로 10만개 넘게 줄어들었다.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 일자리는 노노(老老)케어 확대 등 영향으로 26만개 이상 늘어나면서 명확한 양극화를 나타냈다. 일자리 사정이 녹록지 않은 데다 고령 인구는 증가하고 청년층은 줄어드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502만1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31만4000개 늘었다. 일자리 증가폭은 2022년 2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7분기 연속 둔화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소폭 반등했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로, 고용동향에서 집계하는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소위 ‘투잡’을 뛰고 있다면 취업자는 1명이어도 일자리는 2개로 잡힌다. 연령대별로는 여전히 양극화가 나타났다. 20대 이하 청년층 일자리는 전년 대비 10만2000개 감소했다. 청년층 감소폭이 10만개를 넘어선 것은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그나마

배달 라이더나 알바 등 단기 일자리가 많은 운수·창고(5000개)와 숙박·음식(5000개) 등에서 늘었지만, 나머지 산업 대부분에선 쪼그라들었다. 청년층 ‘취업률’ 인구가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고용 악화가 지속하는 가운데 저출생 장기화로 인구 자체도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경제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는 전년 대비 3만2000개 줄었는데, 이 역시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김지는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40대는 주로 제조업과 건설업에 분포돼 있는데, 최근 건설업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40대 일자리 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나상현 기자 >> 4면 ‘청년층 일자리’로 이어집니다

한인 Z세대 극단선택 아태계 중 2번째 높다

아태계 10만명당 9.17명 집계 남성 72%, 여성 125%나 증가
아시아계 젊은층의 극단 선택이 늘고 있다. 특히 한인 젊은층(15~24세)의 자살률이 눈에 띄게 급증했다. 19일 미국의사협회 소아과학저널(JAMA pediatrics)은 ‘아시아태평양계 젊은층 자살률’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2018~2021년 사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태계 젊은층 1880명(15~24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담겨 있다. 이를 토대로 보면 남성 자살률은 72%, 여성 자살률은 125%나 급증했다. 자살은 아태계 젊은층 사망원인 1위로 꼽히고 있다. 이 기간 아태계 젊은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재입
순금 아가 플랜지링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n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교통사고는 왓츠 & 박”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미국, 북·중·러 핵공조 막는다 “바이든, 새 비밀 핵전략 승인”

NYT “북·중·러 동시역지 필요성”
중국 “미국이 세계 최대 핵 위협”

민주당, ‘북 비핵화’ 정강 삭제에
“해리스도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울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 사흘째인 2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빠른 핵무기 확장에 대비한 새로운 비밀 핵전략 문서에 서명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문건을 접한 고위 관계자들은 “북한·중국·러시아의 핵 위협을 동시에 억지할 필요성이 부각됐다”고 말했다. 중·러 군사협력에 이어 북·러 군사 밀착 등이 3국의 핵 위협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공개 전략 문건인 ‘핵 운용 지침(NEG·Nuclear Employment Guidance)’에 서명했다. 4년마다 갱신되는 NEG는 소수의 안보 담당 고위 관계자와 군 지휘관에게 인쇄본으로만 배포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된다. 이번 NEG는 중국의 핵무기 보유

량이 2030년까지 1000기, 2035년까지 1500기 규모로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 미 국방부의 예측을 토대로 작성됐다고 한다. 미국은 중국의 핵전력 증강을 우려하는데, 미·중 간 핵 충돌 가능성을 막기 위한 핫라인 구축도 중국 측반대로 사실상 협의가 중단됐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대규모 무기 판매를 승인한 것을 이유로 대화 재개를 거부하고 있다. 프라나이 바디 국가안보회의(NSC)

군비통제·군축·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은 “(새로운 전략은) 러시아·중국·북한을 동시에 억지할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NYT는 “과거엔 미국의 적들이 미국의 핵 무력을 능가하기 위해 공조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지만, 라·중 간 새로운 파트너십과 북한·이란의 대러시아 무기 제공은 워싱턴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놨다”고 전했다. NYT는 “김정은은 핵무기를 두 배로 늘려 현재 6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



대변인은 “미국이야말로 전 세계 최대의 핵 위협이자 전략적 리스크를 야기하는 국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 새 정강 작성에 참여한 콜린 칼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최근 공개된 민주당 정강에 북한 비핵화 목표가 빠진 것은 “당장 이뤄지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 인식 때문”이라며 “카말라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는 목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화당에 이어 민주당 강령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규정한 이전 내용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강령이 의도하지 않은 부분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로 남아 있으며,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그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단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시급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가 없다”며 “그런 만큼 우리의 단기적 우선순위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의 역제(력)를 강화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상진·이승호 기자

“북한에 침략은 정권종말 인식시켜야”

윤 대통령, 육군 지상작전사 찾아
을지연습 중인 한·미 장병 격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미 동맹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울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 사흘째인 이날 윤 대통령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장병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평화는 늘 전쟁을 대비하고 준비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며 “절대로 공짜 평화라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과거 제10야전군(강원도)과 제30야전군(경기도)이 통합돼 2019년 창설된 부대로 대통령이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령부 지하 전투작전본부에서 한·미 장병 70여 명과 악수를 나누는 윤 대

통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장병 여러분이 깊은 우정을 쌓고 튼튼한 전우애로 무장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부대에 도착한 직후 손식 지상작전사령관,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 강신철 한미연합군부사령관, 크리스토퍼 라니브 미8군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과 기념 촬영을 한 윤 대통령은 손사령관으로부터 북한 위협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와 UFS 연습 상황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적화통일을 꿈꾸며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북한 정권에 ‘침략은 곧 정권의 종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발언을 끝내며 한·미 동맹의 상징 문구인 “같이 갑시다! 위고 투게더(We go together)”를 외쳤다.

검찰, 조국 31일 소환... “문재인 전 사위 특채 의혹 조사”

태국 이주과정 등 참고인 조사
조국 “검찰이 오라 하니 같 것”
전 사위도 이상직도 모른다 부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44)씨의 타이이스타렛 특채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가 21일 “조국(사진) 조국혁신당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 검찰에 나와 달라고 통보했다. 앞서 조 대표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참고인 조사 일정을 공개했다.

검찰은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18년 3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같은 해 7월 서씨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가족의 태국(타이)스타

렛 본사(소재국) 이주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민정수석은 정부 인사 검증과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하는 자리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이상직 전 이사장도, 문재인 대통령님 전 사위도 알지 못한다. 이상직씨는 통상적 청와대 인사 절차에 따라 추천·검증된 후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 대통령 전 사위 취업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또 “검찰이 오라 하니 같 것”이라며 “검찰에게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 및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는 힘의 백분의 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쓰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20일) 전주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임 전 실장은 2017년 말 열린 청와

대 비공개회의에서 조현욱 당시 인사수석 등과 함께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전 실장은 “정기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여는 대통령 임명직 인사와 똑같은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며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조현욱 전 수석은 피의자로 입건됐다.

항공업 경력이 전문한 서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인 2018년 7월 이 전 의원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렛에 전무로 채용됐다. 급여 월 800만원과 가족 주거비 등을 받았다.

다혜씨는 2018~2020년 태국에 머물 때 최소 3명 이상의 청와대 직원과 돈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월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다혜씨 계좌에서 입출금된 돈이 문 전 대통령 부부 돈인지, 공적 자금이 포함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전주=김준희 기자

워싱턴 날씨 (°F)

23일(금)	84~62	26일(월)	91~71
24일(토)	87~66	27일(화)	92~71
25일(일)	89~68	28일(수)	92~72

8월 22일(목) 80~60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싱글홈 지하 렌트 월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샤워, 드라이어

BURK 타운홈 3층 END UNIT
특점 \$660,000
저렴세금/보통/위장/리노

SOLD

집을 구입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신중하게 시간을 갖고, 최적의 집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철저한 검토를 통해 최고의 집을 찾아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상가 임대수입
발티모어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아파트

상가 임대수입
DC - 식당입주한 건물 2백6십만불
3000SF 복층, 월순수입 \$11,000

스시 식당
알링턴 버지니아
판매가: 50만
1900 SF, Rent 8900 SF
연매상 \$1,058,000

**에안데일 최고의 상권
단독건물**
K-Market 건너편
2500 SF, 식당이나 커피샵,
맥주 전문점 하면 좋은자리
임대 문의 바람

버지니아 상가건물
3백10만불
1.8에이커
Cap Rate 7%, 임차 5개
연순수입 \$218,000

상가 임대수입
맥클린, 단독건물, 4백5십만불
6,000 SF

상가 임대수입
상가 8백만불, 비엔나, 버지니아
연순수입 52만불, 8백만불

Beer & Wine Shop
35만불, 주1만8천불 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VA, 조건부 임대계약

DC 유명 델리
판매가 55만불
주인없이 운영
정부입주 건물 1층
순수익 = 주인운영 없이 1만불

Beer & Wine Shop
50만불, 주2만불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MD, 조건부임대계약

주재원, Start-up 회사, 한국공기업, 사무실, 공장, 창고 등
전문부동산 다량의 기업 성사 기록보유, 미국 전역 가능합니다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ONE REALTYONE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THE SCHNEIDER TEA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www.dwellwashington.com

VA 대선 여론조사 결과...“오차범위 접전”

VA 레아노크 칼리지 조사 해리스 47%·트럼프 44%

버지니아의 대선 여론조사에서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민주)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지니아 레아노크 칼리지의 정책및 의견연구연구소(IPOR)가 지난 12-16일 투표 의향이 있는 버지니아 유권자 691명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해리스 부통령이 47%, 트럼프 전 대통령이 44%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4.5% 포인트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선언하기 이전인 지난 5월 실시된 IPOR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42%로 동률을 기록했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후보가 교체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채 투표를 진행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6%포인트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다. 5월부터 8월 사이 대선 토론회 등 바이



든 대통령에게 불리한 악재가 많이 작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를 이끈 해리 윌슨 IPOR 선임연구원은 “민주당의 후보 교체로 버지니아 여론 변화가 발생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벌어지지 않았다”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3% 앞서지만 오차범위 내의 우세이기 때문에 승세를 굳혔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평가했다.

7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암살 시도에 맞선 대응이 강건함을 증명한다는 응답은 50%, 표를 얻기 위한 시도에 불과했다는 응답이 44%를 기록했다. 51%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에 대한 위협이라고 답했으며, 47%는 민주당의 후보 교체가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적대적 행위였다고 답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상대로 누가 더 잘 대처할 것 같냐는 질문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56%로

해리스 부통령을 앞섰다. 두 후보의 호감도는 40% 대였으나 해리스 부통령이 약간 앞섰다.

부통령 후보에 대한 호감도는 팀 윌즈 미네소타 주지사(민주)가 34%, JD 뎀스 상원의원(공화)가 32%로 매우 낮았다. 두 후보의 비호감도는 각각 51%와 55%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전 조사보다 부동층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양자 대결시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8%, 기타 후보를 포함한 6자 대결에서는 13%를 기록했다.

6자 대결에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6%, 코넬 웨스트와 체이스 올리버가 각각 2%, 질 스테인이 0%를 기록했다.

윌슨 선임연구원은 “시간이 갈수록 사표방지사태가 작동해 제3후보 지지세가 줄어들고 양당 후보 쏠림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유권자 표심이 고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응답자의 79%가 현재 지지하는 후보에게 확실히 투표할 것 같다고 밝혔으며, 18%는 꽤 확실하다고 답했다. 60%는 투표 열정이 강하고 25%는 꽤 강하다고 답했다.

버지니아 주민의 가장 큰 투표 이슈는 경제(48%), 낙태(16%), 이민(15%), 국제관계(6%), 범죄(4%) 등이었다.

68%는 선거 당일, 31%는 조기 투표와 우편 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선거에서는 팀 케인 의원(민주)이 49%로, 험 카우(38%) 후보를 넉넉하게 앞서고 있다. 케인 의원의 호감도는 50%로 최근 6년래 가장 높았다.

글렌 영킨 주지사(공화)의 호감도는 54%로 임기 중 가장 높은 성적표를 받았다. 김옥재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 나선 안젤라 올소브룩스 누구?

연방상원 선거에서 래리 호건과 맞붙어

래리 호건 전 MD주지사와 연방 상원 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안젤라 올소브룩스(53·사진)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군수가 지난 20일 민주당 전당대회 프라임 타임 연설자로 나서 전국적인 정치 데뷔 무대를 밟았다.

올소브룩스 군수는 카운티 검사장 선거에 출마했던 2010년 당시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이었던 해리스 부통령에게 멘토가 되길 것을 요청했으며 이후 지금까지 14년 동안 멘토로 모시고 있다고 밝혔다.

흑인인 올소브룩스 군수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 해리스 부통령이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면서 “그의 승리는 나같은

흑인여성 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약자계층에게 희망과 꿈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연방상원 민주당 예비경선에서 현역 연방하원의원을 꺾고 후보로 확정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올소브룩스가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의 래리 호건 전 주지사를 상대로 승리한다면 메릴랜드 최초의 흑인 연방상원의원, 연방상원 역사상 네번째 흑인 여성 의원 기록을 갖게 된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서 워싱턴 포스트 신문 보급소 직원의 딸로 태어난 올소브룩스는 듀크 대학 학부와 메릴랜드 대학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일하다가 2010년 카운티 검사장 선거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그는 8년 동안 검사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살인사건 등 강력사건을 절반으로 줄이는 성과를 얻고서 2018년 카운티 군수에 도전해 성공했다. 카운티 군수 시절에도 연방수사국(FBI) 본부 건물을 유치하는 등 굵직한 업적을 쌓아왔다.

올소브룩스는 카운티 검사장에 당선된 후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로부터 낙점을 받아 멘토와 멘티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올소브룩스의 능력이 과대포장돼 있으며 연방정치권에서 두각을 나타낼만한 정치적 자질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올소브룩스를 스타로 만든 계기는 강력사건을 줄였다는 것인데, 2011년부터 2018년 사이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범죄율이 급감하던 시기



였다. 워싱턴DC도 이 기간 살인사건이 절반 이하로 주는 등, 전반적으로 워싱턴 지역 치안이 안정을 되찾아갔던 과정에 있었다.

또한 FBI 본부 건물 유치과정에서 올소브룩스 군수의 역할을 매우 미미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본부 건물 후보지 두 곳은 모두 올소브룩스 군수 취임 이전에 확정됐으며, 메릴랜드 출신 연방상하원의원들의 공

이 매우 컸다. 최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800여명의 카운티 공무원 채용 계획을 백지화하고 복지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 원성을 사기도 했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중 상당수는 한인을 백인시하는 기존 흑인 정치인의 나쁜 관행은 되풀이했던 인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팬데믹 시기에는 라티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정책을 전혀 펼치지 않고 흑인 커뮤니티만 챙겼다는 비판이 거셌다.

그가 흑인이지만 과연 흑인 편에서 일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국 내 흑인 경찰관 차별논란이 불거지며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올소브룩스 군수는 합의를 거부하고 지금까지 변호사비용만 최소 1760만달러를 집행하는 등, 완고한 관료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김윤미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오미!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오미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너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너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2024년도 가을학기 개강 (9월 6일)



중앙 시니어센터
Central Senior Center

15451 Route 29, Centreville, VA 20121
전화: (703) 303-3939

◆ **개강식: 2024년 9월 6일 (금) 오전 10시 30분** (당일 등록은 9시 30분부터)

◆ **장 소: 중앙장로교회 은혜채플**

수업일 9월 6일(금) ~ 12월 10일(화) (휴일: 11월 29일)

▶ 교회 대면수업: 매주 화, 금요일 오전 10:00 ~ 오후 2:00
▶ 온라인(Zoom)수업: 매주 목요일

등록비 매주 화, 목, 금 중 1일 등록: \$60 / 2일 등록: \$110 / 3일 등록: \$160

버스이용비 1일 \$30 / 2일 \$60 (특정지역에 한함, 전화 문의)

▶ 9월 6일 이후 등록비 반환 / 크레딧 이전 불가

등록방법

▶ 평일 등록: 매주 화, 금 오전 10시-12시 중앙시니어센터 사무실 (#1108)
▶ 우편 등록: 웹사이트(<https://main.kcpc.org/seniorcenter/>)에서 등록원서 다운로드 하신 후 체크(Payable to: CSC)와 함께 우편 등록 (보내실 곳: CSC, 15451 Route 29, Centreville, VA 20121)
▶ 주일 등록: 8/18, 8/25, 9/1 중앙장로교회 1, 2부 예배 후

가을학기 밴 운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정의 사례비 드림)

	화요일 (대면 수업)	금요일 (대면 수업)
10:00 ~	체조/예배/특강	체조/예배/특강
10:50 ~ 12:00	성경, 성경인물, 시민권, 하모니카(중급), 컴퓨터, 영어기초, 드로잉기초, 수채화, 기타찬양, 노후자산/주식투자, 파워포인트, 힐링체조, 라인댄스, 갤럭시폰, 손뜨개, 서양화이론, 인공지능영어회화, 바둑(초급)	성경(신약), 성경QT, 시민권, 영어기초, 고급영어, 생활영어, 아이폰(기초), 갤럭시폰(중급), 서양화(초,중급), 트럼펫, 하모니카, 성악발성교실, 건강라인댄스, 태권도, 중국어, 바둑(초급)
12:50 ~ 2:00	재미있는 성경이야기, 한눈에 보는 성경, 문예&자서전반, 시민권인터뷰, 만물권(중급), 하모니카(고급), 색소폰(중급), 서양화 이론, 서예, 수채화, 골격강화운동, 라인댄스, 노래교실, 일본어 기초, 키보드, 한국/미국역사, 손뜨개, 바둑(초급)	성경인물, 골격강화 운동, 시니어상담&코칭, 영어기초, 100세 건강, 일본어, 영어동요, 노후자산/주식투자, 바둑(초급), 갤럭시폰(초급) & AI 챗봇, 북음성기, 동양화, 크로마하프, 색소폰(초급), 한국무용, 춤바 & 라인댄스, 수지침, 색연필 coloring, 드림 기초반
온라인 수업	목요일	실내 걷기 운동, 색연필 민화, 성경 통독, 키보드, 민화의 첫걸음, 노래하며 배우는 팝송영어, 영어성경 기초, 한방지압

오바마·클린턴 “투표로 승리”... 아시안 뜨거운 지지

민주당 전당대회 이틀째

미셸 오바마 “여성 위해 해리스” 클린턴, 경합주 향해 한 표 호소 한인 대의원 “현장 열기 놀라워”

시카고에서 열리고 있는 민주당 전당 대회가 굽적한 인물들의 연설로 이틀째 열전을 이어가고 있다.

가장 크게는 이번 해리스 후보 옹립에 사실상 막후 역할을 해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 전 퍼스트레이디가 출격했다. 2008년 일리노이 출신 신출내기 상원의원으로 정권교체를 이끄는 동시에 유색 인종의 지위를 격상했다는 평가를 받는 오바마는 해리스의 당선이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미국의 개혁은 아직 진행 중이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끌어온 역사를 해리스가 이어갈 중요한 전환점



시카고에서 이틀째 열리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빌 클린턴-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설이 이어지면 서 첫날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카말라 해리스 후보 지지 연설에 나선 게리 피터스 연방상원의원. [로이터]

에 왔다”며 “끝나지 않은 싸움에서 당원과 깨어있는 미국인들이 투표를 통해 승리로 이끌어 내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셸 오바마는 바이든 교체론이 제기됐을 때 대체 후보로 언급될 정도로 여성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해왔다. 본인은 정작 정치 참여를 거부해왔

지만 이날 연설로 막후 또는 향후 대망론에 불을 지폈다.

미셸 오바마는 여성의 권리와 지위를 지키려면 이번 선거에는 해리스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이날 연설자로 나섰다. 19일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제외하고 가장 긴 환호를 받았던 힐러리 클린턴에 이어 클린턴 전 대통령 역시 큰 환호 속에 연설을 이어갔다. 그는 특히 경합주로 구분되는 동남부 주들의 백인과 부유층들을 대상으로 민주당 정권 유지의 당위성을 설명해 주목받았다.

한인 민주당 관계자들도 전당대회에 참석 중이다.

가주 연방하원 34지구 대의원으로 전당대회에 참석 중인 해나 조(컨설팅)씨는 “특히 대화장 내에 아시안 커뮤니티의 열기가 뜨거워 놀랐다”며 “오바마의 연설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부 모습에 더 큰 신뢰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가주 출신 대의원으로서는 조씨를 비롯한 진 김(해리스를 지지하는 한인 모임) 공동대표, 제이슨 박씨 등이 시카고 전당대회를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다.

한편 이번 전당대회에는 일부 공화당 인물들도 연사로 나선다.

민주당 측은 언론의 노출도가 높아지는 3~4일째 일정에 존 가일스 애리조나주 메사 시장, 제프 던컨 조지아주 부지사가 연단에 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 초기 해리스 지지를 선언한 공화당 소속 정객들이다. 여기에 트럼프 정권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팀에서 일한 올리비아 트로예도 마이크를 잡고 트럼프 불가론을 역설한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인 리즈 체니도 지난 의사당 폭동사태 이후 트럼프 진영을 떠났다. 그는 “트럼프는 미국 민주주의의 큰 위협”이라고 공개 발언한 바 있다.

최인성 기자



‘제10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개막’ 전 세계의 전·현직 한인 정치인들이 함께하는 ‘제10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이 20일 페어몬트 엠베서더 서울에서 개막했다. ‘세계 한인, 번복점을 넘어 미래를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총 14개국에서 100여명이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정대철 대한민국의회장 등 정관계 인사 50여명도 함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특별강연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설명한 뒤 “한인으로서 정체성과 유대감을 다지고 국적과 문화장벽을 넘어 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축사에서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 간 상생발전이 인류공영과 세계평화로 이어지는 지혜가 모이길 기대한다”며 “정치력 신장으로 인한 동포사회의 위상변화가 세계 한민족의 총체적 역량 확대에 이어갈 수 있도록 동포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1면 ‘청년층 일자리’에서 이어집니다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26만3000개가, 50대에서 12만8000개가 늘어났다. 30대에서 5만7000개 증가했다. 사실상 고령층이 전체 일자리 상승을 견인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를 포함한 공공일자리를 지난해 104만4000개에서 올해 117만4000개로 13만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고령층 증가폭은 대부분 보건·사회복지에 집중됐다. 60대 이상에서 11만개, 50대에서 2만8000개가 각각 전년 대비로 늘었다. 이 중에서도 60대 이상의 경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 357만9000개 중 21.8%에 해당하는 78만1000개가 해당 산업에 속해 있다. 김 과장은 “고령화가 지속하면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가 확대된 영향이 크다”며 “실제 요양원 돌봄 종사자 등이 60대 이상 여성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나상현 기자

» 1면 ‘Z세대’에서 이어집니다

자살률이 가장 높은 민족은 베트남계로 인구 10만 명당 10.57명으로 조사됐

다. 이는 아태계 젊은층의 전체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9.17명)을 웃돈다. 한인 은 젊은층 인구 10만 명당 8.44명이 스

스로 목숨을 끊었다. 민족별로 보면 베트남계에 이어 두 번째로 자살률이 높다. <그래프 참조>

전문가들은 아태계 젊은층의 자살 충동 원인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가정불화, 정체성 혼란, 이민자 가정과 미

국 생활의 가치관 충돌, 부모와 소통 부재’ 등을 꼽고 있다.

김형재 기자

DARCARS

LEXUS OF SILVER SPRING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불체자도 첫 주택 15만불 지원 논란

드림포올 확대안 주하원 통과 재정적자 가중·추첨 경쟁 심화

가주 첫 주택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 '드림포올'의 수혜 대상자를 불법체류자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AB1840)이 가주 상원 소위를 통과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가주 상원 표결을 앞둔 이 개정안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 국한됐던 신청자격에 소셜번호(SSN)나 개인납세자번호(ITIN)를 가진 불법체류자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을 발의한 호아킨 아랍블라 하원의원은 "드림포올이란 프로그램 명칭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수혜자 범위를 넓힐 경우 생길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드림포올은 이미 경쟁이 치열한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지난해 선착순으

로 진행된 1차에서는 2주가 채 되지 않은 기간에 3억 달러의 예산이 모두 소진됐다. 2만 건이 훌쩍 넘는 신청서가 접수돼 경쟁률이 10대1에 가까웠다. 올해 시행된 2차 프로그램에서는 지역, 인종, 소득에 근거한 추첨제를 도입했고 1700여 명을 뽑는데 1만8000여 명이 몰려 경쟁률이 10대1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체류자로 수혜 대상이 확대되면 경쟁이 더 치열해져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가 어렵다는 게 반대 측의 주장이다.

이에 더해 현재 380억 달러에 달하는 주정부의 재정 적자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결국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로 가주 상원 세출위원회는 "수혜 대상자를 늘리면 프로그램 운영에 추가로 수백만 달러가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빌 웰스 앨카혼 시장은 "적법한 신분의 주민이 먼저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시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들에게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드림포올은 조건을 충족하는 첫 주택 구매자 중 추첨을 통해 선발한 가주민에게 다운페이먼트나 클로징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금은 주택 가격 또는 감정가의 20% 또는 최대 15만 달러 중 더 적은 금액이다. 지원을 받고 나면 최장 30년 동안 원금 상환을 하지 않아도 돼서 신청자가 많다. 2023년에 처음 시행된 드림포올 프로그램은 3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으로 2300명에게 도움을 줬다. 올 4월에 시행된 2차 드림포올은 지원금이 1차보다 5000만 달러가 줄었다. 추첨에서 당첨된 170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 신청자격은 >부모가 무주택자인 1세대 바이어 >지난 7년 동안 집을 소유하지 않은 첫 주택구매자 >연간 소득 한도 지역 중위 소득의 120%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등이다. 조원희 기자

인천행 기내 소란 승객 벌금형

술 취해 40분간 "와인 더 줘"



미국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린 40대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셋별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40분 동안 소란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무원들에게 "와인을 더 달라"며 "왜 술을 주지 않느냐"고 따졌다. 승무원이 앞서 술을 제공한 기록을 보여주자 A씨는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은 와인을 마셨느냐"며 "누가 서비

스했느냐"고 또 호통쳤다.

A씨는 여객기 내 승무원 업무공간인 '갤러리'에 들어가 "내가 기내난동을 부렸느냐"며 "그냥 술 한잔 더 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도 "승무원들에게 술을 추가로 달라고는 했지만, 갤러리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여객기 운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소란 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당시 A씨의 행위가 관련 법상 소란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영혜 기자

미성년자 성매수 시도 혐의 콜로라도 한인 등 3명 체포

한인 남성이 미성년자 성매수 시도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19일 콜로라도주 서밋카운티 셰리프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주 마크 김씨 등 3명을 아동 매춘 시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덴버에 거주하는 김씨는 인터넷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돈을 지불하고 성매수에 나서려고 한 2건의 중범죄 혐의로 체포됐다.

김씨 등 미성년자 성매수에 나서려고

한 이들은 서밋카운티 법집행기관의 합동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잡혔다. 서밋카운티는 관내 미성년자 성매매를 뿌리 뽑기 위해 콜로라도 수사국(CBI), 콜로라도 검찰, 서밋카운티911센터 등과 함께 합동 잠복 수사를 벌였다. 김형재 기자

컵라면 없앤 대한항공, 핫포켓·포키·콘덕 제공

기내 셀프 스낵바서 제공

대한항공이 안전 이슈로 서비스를 중단한 기내 일반석 컵라면을 대신해 다채로운 간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공개 요청에 따라 지난 19일 대한항공 미주지역본부가 알려진 미주노선 간식 서비스 메뉴에 따르면 미주출발편의 경우 파이 곱질 속에 다양한

속을 채운 음식으로 인기 있는 핫포켓을 비롯해 샌드위치, 카스타드, 예감 잡자칩, 믹스드넛 등이 제공되고 있다.

인천발 미주노선 탑승객들은 피자 또는 콘덕(한국식 핫도그), 샌드위치, 다이제비스킷, 프링글스, 포키 등을 맛볼 수 있다. 간식은 지난해 11월부터 일반석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기내 셀프 스낵바를 통해 승객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미주노선 일반석에 제공되는 기내 간식들. [각 업체 제공]

대한항공 측은 "간식 메뉴 품목이 출발시간대 및 운항 거리에 따라 다르게 서비스되며 향후 확대, 변경을 통해 기내식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윤희 기자

"아시아 파워 커지려면 시민권 시험 장벽 낮춰야"

USC 돈사이프 보고서 제안 저소득층, 영어 공부 시간 부족 인구 증가 따라 정치인 높아야



아시아 커뮤니티가 오는 2055년 미국 내 가장 큰 이민자 집단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선출직 공무원도 함께 늘리려면 시민권 시험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USC 돈사이프(Dornsife)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아시아인 시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일반(760달러)·온라인(710달러)의 부담스러운 수수료로 인한 재응시 난항 >지역 비영리단체(CBOs, Community-based organizations)의 무료 수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향상되지 않는 영어 구사력 등이 꼽혔다.

영어 구사능력이 떨어져 시민권 시험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은 저소득층일수록 높았으며, 이들은 생업에 종사하느라 영어 공부를 할 시간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사람들의 출신 국가별 비율은 >베트남(78%) >미얀마(73%) >한국(72%) >중국(67%) >태국(66%) 등의 순으로 집계됐고, 영어를 사용하는 필리핀 출신도 41%에 달했다.

연구진은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아시아 아메리칸만이 겪는 미묘한 경험들을 공문화하고 문화를 이해한 이들이 대표성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늘어날 것"이라며 "시민권 시험의 장벽을 낮춰 귀화를 용이하게 하면 미국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 함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주정부 등이 영어 실력 증진 및 시민권 취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 장학금 제도를 늘리는 경제적 혜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민혜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의 절인 마이클 장

맞춤형의 절인 마이클 장
절인과 함께하시면
유사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 임마누엘 홈힐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
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Main Office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미국 Z세대 절반 이상 “대통령·의회 거의 신뢰 안해”

미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이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이른바 ‘Z세대’(GenZ:1997~2006년생)로 불리는 젊은 층의 절반 가량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자리에서 맞불 시위를 벌이는 민주·공화 지지자들.

20일 미국 인터넷 매체 약시오스에 따르면 여론조사전문기관 갤럽은 올해 4월 26일부터 5월 9일 사이 12~27세 미국인 4천15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대통령에 대해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과반인 51%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조사보다 4%포인트 높아진 비율이라고 약시오스는 전했다. 대통령을 ‘매우’ 혹은 ‘꽤’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4%에 그쳤다.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불신 역시 만만치 않았다.

의회와 연방대법원을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각각 전체의 53%와 44%였다.

특히 투표 연령대(만 18세 이상)에 들어선 응답자들은 아직 중·고교에 다니는 응답자들보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더욱 낮은 편이라고 갤럽은 전했다.

약시오스는 이번 조사의 경우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등판하기 전에 진행됐고, 당시에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경합주 다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며 기세를 올린 상황

이었다고 짚었다.

한편 약시오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사퇴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항마’로 급부상한 이후인 이달 16~20일 7개 핵심 경합주의 Z세대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별개의 설문에서 해리스가 트럼프를 32%포인트차로 앞섰다고 소개했다.

Z세대 비영리단체 ‘내일의 유권자’(VOT·Voters of Tomorrow)가 진행한 이 설문은 애리조나,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위스콘신의 18~29세 성인 1천60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3분의 2는 11월 5일 차기 대선에서 투표장을 찾아 한 표를 행사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는 ‘확실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갤럽 설문은 오차범위는 ±2.1%, VOT 설문은 오차범위는 ±2.4%다.

연간 고용증가 81만8천명 하향 조정

미국의 고용시장이 당초 파악됐던 것만큼 뜨거운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미당국의 공식 통계 수정발표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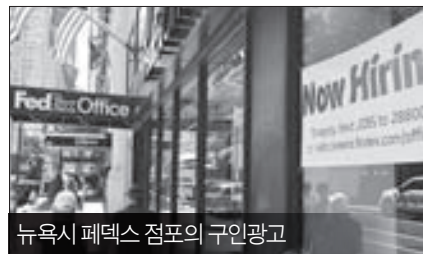
노동부는 21일 올해 3월 기준 연간 비농업 일자리 증가 폭을 종전에 내놓았던 숫자에서 81만8천명을 줄여 수정 발표했다.

이는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의 일자리 증가 폭이 종전에 발표된 수치(290만명)보다 약 30% 낮았다는 의미다.

월간 기준으로는 이 기간 일자리 증가 폭이 종전 24만6천명에서 17만7천명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 같은 하향 조정폭은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컸다고 CNBC 방송은 전했다.

이날 고용통계 수정 발표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기준 통계



뉴욕시 페덱스 점포의 구인광고

발표 이후 추가된 광범위한 주(州) 단위 납세 자료를 반영해 이뤄졌다.

최종 확정 통계는 내년 2월 발표되며 지난 4년간의 사례에 비춰볼 때 다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를 인용해 전했다.

지난 7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미국의 노동시장이 예상 밖으로 빠르게 냉각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월가에서는 이날 고용지표 수정 발표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미국의 노동시장이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강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이번 수정 발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고용시장 약화에 대응해 9월 금리인하를 개시할 것이라 시장의 전망을 한층 강하게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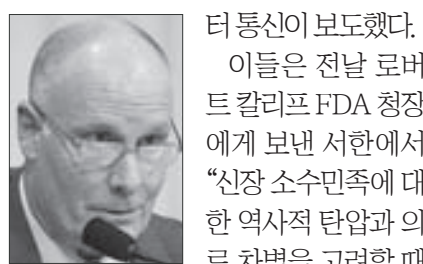
시장은 오는 23일 잭슨홀 연례 경제 심포지엄에서 예정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기다리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노동시장이 애초 발표됐던 것보다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악화하는 노동시장은 연준이 물가와 고용 두 목표를 모두 중시하게 할 것이고, 투자자들은 연준이 9월 금리인하에 대비해 시장을 준비시킬 것으로 예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제약사들 중국서 임상시험…위구르족 강제참여 가능성”

미국 제약회사들이 중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에 현지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이 강제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 의회에서 나왔다.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의 존 몰레나르(사진) 위원장(공화당)과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20일 미 제약사들이 지난 10년간 중국군 운영 병원과 협력해 신장위구르자치구를 포함해 중국에서 수백건의 임상시험을 했으며 미 식품의약품청(FDA)의 조사 강화를 촉구했다고 로이



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들은 전날 로버트 칼리프 FDA 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신장 소수민족에 대한 역사적 탄압과 의료 차별을 고려할 때(신장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윤리적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협력적 연구 활동은 중요한 지식재산이 (중국 인민해방군에) 넘어가거나 중국 국가보안법에 따라 (중국의) 통제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이 서한에는 안나 예슈 민주당 하원 의원(캘리포니아)과 닐 던 공화당 하원 의원(플로리다)도 서명했다.

FDA는 서한 내용과 관련한 로이터 통신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은 서한 내용이 근거가 없거나 허위라고 일축하며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미 협력은 본질적으로 상호 이익”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협력을 정치화, 도구화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녹아 1차대전 참전군인 유해 발견

이탈리아 알프스산맥의 빙하가 계속된 폭염으로 녹아 제1차 세계대전 참전군인 유해 2구가 발견됐다.



이탈리아 알프스산맥에서 발견된 1차 대전 참전군인 유해.

21일 일간지 코리에레텔라세라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탈리아 북부 돌로미티산맥의 최고봉인 마르몰라다의 해발 2천700m 지점에서 유해 2구가 나왔다.

마르몰라다 케이블카 관리 직원이 태양열과 빛으로부터 빙하를 지키기 위해 덮은 방수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들은 1915년부터 1918년까지 이탈리아군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군의 산악전에 참전했던 코모 여단 소속의 보병으로 확인됐다.

북부 트렌토 경찰은 “군인들의 군번 줄 덕분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코모 여단을 상징하는 흰색-파란색 휘장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 세기가 넘도록 빙하 속에 갇혀 있던 이들의 유해가 점점 더 높아진 여름

기온으로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다른 알프스 빙하와 마찬가지로 마르몰라다 역시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다. 그로 인해 폭발물 발견 건수도 2021년 340개, 2022년 785개, 지난해에는 1천39개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된 포탄 53개가 발견돼 폭탄 처리 전문가들이 출동했다.

‘베니퍼’ 커플 결국 파경…제니퍼 로페즈, 이혼 소송 제기

할리우드 스타 커플 제니퍼 로페즈(55)와 벤 애플렉(52) 부부가 파경을 맞게 됐다.

AP통신과 TMZ 등 미국 매체들은 20일 로페즈가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이 2022년 7월 결혼해 부부의 연을 맺은 이후 약 2년 만이다.

TMZ는 로페즈가 제출한 이혼 서류에 혼전 합의 내용이 없는 것으로 미뤄 두 사람이 결혼 당시에는 이혼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혼전 합의가 없으므로 두 사람은 이번 소송을 통해 지난 2년간 축적한 재산을 분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TMZ는 설명했다.

파경설이 불거지고 지난 몇 달간 두



2021년 9월 베네치아국제영화제 참석한 벤 애플렉과 제니퍼 로페즈 커플.

긴 관계가 이번에는 진짜 끝날지 주목하고 있다.

두 사람은 2000년대 초반부터 교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름 첫 글자를 합친 ‘베니퍼’란 애칭으로 불리며 대중의 큰 관심을 받은 할리우드 대표 스타 커플이었다. 이들은 2002년 약혼하고 결혼까지 약속했다가 이듬해 결혼식을 미루고 2004년 파혼을 선언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후 애플렉은 배우 제니퍼 가너와 결혼했다가 2018년 이혼했고, 로페즈는 가수 마크 앤서니와 결혼했다가 2014년 이혼하는 등 세 차례의 결혼-이혼 경력이 있다. 로페즈는 또 미국프로야구(MLB)의 전설 알렉스 로드리게스와 2019년 약혼했다가 2021년 헤어지기도 했다.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우리 고유 명절

추석 2024 행사

독거노인들의 우울증, 치매에 의한 고독사 방지를 위한 사랑의 쌀 전달 행사에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을 바랍니다.

- 일시 2024년 9월 17일 (화) 정오 12시
- 장소 H-Mart 버크 지점
9550 Burke Rd., Burke, VA 22015
- 문의 202-258-6384

후원금 보내실 곳

- Pay to the Order of : K.S.C.A.
- 주소 : 1609 Great Falls St. Suite 243, McLean, VA 22101

워싱턴 통합 노인 연합회
회장 우태창 외 임원 이사 일동

LOTTE PLAZA market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AUG. 22nd - AUG. 29th, 2024



BACK TO SCHOOL

삼립 호빵

호빚이 한정판

찬 바람 불기전에 준비하는 호호호~호빵

SAMLIP Hojjimi Steamed Bun Gift Pack



2 단팔호빵(3P), 1 야채호빵(3P), 1 버터소금 호빵(3P) + 호빚이(찜기)
2 SWEET RED BEAN HOPANG (3P), 1 VEGETABLE HOPANG (3P), 1 SALT BUTTER HOPANG (3P) +1 STEAMER

~~\$19⁹⁹~~

\$14⁹⁹

2.2 LB
(4 HOPANG + 1 HOJJIMI)



*상품이 이른 시간 소진될 수 있습니다 (Until Supplies Last)

판매가 오실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사정에 따라 조기종료 또는 수정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Richmond, VA
7801 W Broad St.
Richmond, VA 23294

Sterling, VA
30 Pigeon Hill Dr., Sterling
VA 20155

Centreville, VA
5900 Centreville Oval Ln.
Centreville, VA 20121

Chantilly, VA
13920 Metrotech Dr.
Chantilly, VA 20151

Annandale, VA
5304 Park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Ashburn, VA
4393 Farnsworth Hunt Plaza
Ashburn, VA 20147

Hamdon, VA
490 Dahn Street
Hamdon, VA 20118

Elicott City, MD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icott City, MD 21043

Caloverville, MD
6600 Baltimore National Pike
Caloverville, MD 21228

Rockville, MD
1902 Veins Mill Rd.
Rockville, MD 20851

Gaithersburg, MD
221 Mudd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러, 우크라이나군 정예 빠진 동부전선 때렸다... “요충지 점령”

〈도네츠크주 노브고로드스코예〉

우크라이나군, 도네츠크 완전 확보 나서
우크라이나군의 탄약·식량 보급로 장악
젤렌스키 “상황 어렵다” 열세 인정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침공이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에 병력을 추가 투입하며 공세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최정예 병력 일부가 쿠르스크에 투입된 틈을 노려 러시아가 도네츠크의 완전한 장악에 나섰다라는 관측이 나온다.

20일(현지시간) 러시아 국방부는 “도네츠크의 도레츠크에 위치한 정착촌 ‘노브고로드스코예’를 점령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이곳의 우크라이나식 이름(니우요크) 대신 구소련 시절의 이름을 사용해 점령 사실을 밝혔다.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는 이곳이 우크라이나군의 탄약과 식량 보급로로 쓰이는 고속도로가 지나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전했다. 또한 이곳을 통과



20일 체첸공화국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가운데)과 람잔 카디로프 체첸공화국 국가원수(왼쪽)가 우크라이나와의 군사작전 과정에서 포획한 나토군 무기들을 시찰하고 있다. 카디로프는 푸틴의 오피스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하는 철도를 러시아군이 사용하면 보급을 강화해 공격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도네츠크 남부를 회복할 기회를 잃게 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새벽부터 도레츠크 지역에서 14건, 포크로우스크 지역에서 34건의 교전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니우요

크를 점령당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러시아군의 공격에 반격을 가하고 있다”고만 했다. 다만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포크로우스크와 도레츠크의 방어 상황이 어렵다며 열세임을 인정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방어 거점이자 도네츠크의 물류 허브인 포크로우스크에 대한 공세도 강화했다. 우크라이나의 바딤필라슈킨 도네츠크 주지사는 전날 자녀를 둔 가족들에 대해 강제 대피령을 내렸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8일 쿠르스크의 침공 목표를 “러시아의 전쟁 잠재력을 최대한 무너뜨리고 최대한의 반격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침략자의 영토에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WSJ 등은 러시아 본토 기습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최전방의 러시아 병력을 분산시켜 자국군의 방어 부담을 덜어 준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동부 전선의 공세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하

는 상황이 벌어지자, 최전방에서 숨을 돌리려던 우크라이나의 복안이 성공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우크라이나가 최전방에서 병력을 빼내 쿠르스크로 진격하면서 러시아의 도네츠크 진격이 한층 수월해졌다며, 러시아가 도네츠크를 완전히 장악할 기회를 준 셈이란 주장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모스크바에 대규모 드론 공격
러시아 본토를 기습 중인 우크라이나군은 21일 새벽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개진 이래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모스크바가 속한 모스크바주(州) 포돌스크의 세르게이 소비야닌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드론을 이용한 모스크바 공격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모스크바 도심 상공에서 드론 11기를 요격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모스크바 남부의 칼루가(3기)와 서부 국경지대의 브란스크(23기)·벨고로드(6기)·쿠르스크(2기) 등 이날 러시아 영토 내에서 총 45기의 드론을 격추했다. 박형수 기자

러 “서방, 우크라이나의 러 본토 공격 도와” 서방 “사전협의 없어”

러시아가 21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서방의 입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영국,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 무엇보다도 이 앵글로-색슨 듀오(미국과 영국)는 우크라이나 정권에 영감을 주고 물질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그들은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 정권이 러시아 내부를 겨냥하는 것을 돕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서방의 지원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들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지난 6일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접경지 쿠르스크 공격에 서방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니콜라이 파트루세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이 나토와 서방 정보기관의 참여로 계획됐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침공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본토 공격을 시작한 이후에도 러시아 영토에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컴스(ATACMS)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개입을 부인했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러시아 스포트니크 통신에 “지난 5월 우크라이나 북부 국경지대에서 방어 목적으로 ATACMS를 제외한 미국 지원 무기의 사용을 허가했고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쿠르스크 전투 위성사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본토 공격에 미국산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등 서방 무기를 사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는 이날 몰도바 키시너우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가 이번 군사작전을 피드백 없이 매우 비밀리에 준비했다”며 사전 협의가 없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에 자국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이달 말 쿠르스크 원전을 방문할 준비가 됐다고 확인했다면서 “러시아 원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도발이 얼마나 위협한지 이해하면 IAEA는 자포리자와 쿠르스크 원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러 모스크바, 최북서단 도시까지 드론 공격받아

러시아가 남서부 접경지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지상 공격을 받는 가운데 수도 모스크바와 최북서단 무르만스크는 드론 위협에 노출됐다.

21일 로이터,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소비야닌 모스크바 시장은 이날 새벽 텔레그램에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 지역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 드론을 이용한 공격 중 규모가 가장 크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러시아 접경지 쿠르스크를 급습, 2주째 전투를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이번에는 수도권을 겨냥해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소비야닌 시장은 초기 조사에선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면서 드론 11대가 도심 상공에서 러시아 방공부대에 요격됐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 급습을 통해 20일 까지 93개 주거지역을 포함해 1천263㎢(서울의 2배)의 영토를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우크라이나의 이번 모스크바 드론 공격 규모가 지난해 5월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당시 모스크바 상공에서는 최소 8대의 드론이 요격됐다.

또 이번 공격은 러시아의 여러 지역을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대대적 드론 공격의 일부로 보인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서부 브란스크에서 23대, 우크라이나와 접경한 서부 벨고로드에서 6대, 모스크바 남부에 있는 칼루가에서 3대, 우크라이나군과 전투가 진행 중인 쿠르스크에서



2023년 8월 모스크바주 크라스노고르스크시 요격된 무인기 파편

2대의 드론을 각각 요격했다고 밝혔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툴라에서도 드론 2대가 파괴됐다고 전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당국은 구체적인 공방의 내용과 피해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최북서단 무르만스크에서 드론의 위협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안드레이 치비스 무르만스크 주지사가 텔레그램에서 밝혔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이 도시의 무르만스크 공화국 야파티티 공화국이 안전 문제로 운영이 일시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무르만스크에는 군사 공항도 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중 공격을 강화하면서 그 이유로 러시아의 전쟁 기반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방법이 다르다면 결과도 다릅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신분 문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전문가만이 귀하의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여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미국이민의 큰 꿈을 접어야 하는
기막힌 사연 또한 많습니다.

항상 저의 케이스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이민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복잡한 이민법, 오직 이민법만을 고집하는
이재운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Jaewoon Lee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소속 • Attorney At Law
J.D. (법학박사) • Jaewoon Lee & Associates, LLC

이민생활에서 궁금한 모든 사항을 다양한 시각과
풍부한 경험으로 이재운 이민 전문 변호사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Text, myattorney to 703-916-1111
“Text 로 이민상담 신청하세요!”

주요업무

- ◆ 취업이민 영주권 (EB2/EB3)
- ◆ 취업 비자 (H1-B)
- ◆ 종교 비자 (R1)
- ◆ 종교 특별 영주권 (R1/I-360)
- ◆ 투자/교역 비자 (E1/E2)

- ◆ 학생 비자 (F1)
- ◆ 주재원 비자 (L1)
- ◆ 시민권 신청 (N-400)
- ◆ 가족 초청 이민
- ◆ 결혼 이민
- ◆ 추방유예 (DACA)

- ◆ 사면준비
- ◆ 이민국 인터뷰
- ◆ 세계 각국 미 대사관 업무
- ◆ 기각된 서류 항소 및 재심사 요청
- ◆ 이민국 노동청 감사 답변
- ◆ 비자 연장 및 신분 변경

www.jaewoonlaw.com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Jaewoon Lee & Associates, LLC

T. 703-916-1111 / 703-916-1215

Fax. 703-563-6028
E-mail : lee@jaelaw.com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2, Annandale, VA 22003 (예천 길건너편)



한 알에 160가지 성분이 들어있다!



우메켄 효소환 모델
강석우/나연신 부부

브라보
마이
우메켄 효소환

160가지 발효 성분으로 더 강력해진 우메켄 **NEW** 효소환

36가지 과일 | 27가지 야채 | 68가지 허브 및 해초 | 29가지 곡물과 버섯

새로 출시된 우메켄 NEW 효소환이 특별한 이유는?

우메켄 NEW 효소환은 나이 들수록 부족해지는 몸 속에 효소를 채워주는 생명 보조 식품으로
160가지의 순수한 약초와 과일, 채소, 버섯, 곡물의 생명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업그레이드된 효소환으로 몸 속 부족한 효소를 보충하자!

출시 기념

NEW 효소환 구매 시 특별한 선물과 효소환 2주분 무료 증정!

9/2일
까지

이런 분들
꼭 드세요!

- 항상 피곤하고 기력이 없는 분
- 몸 컨디션이 저조하신 분
- 숙취가 심하신 분
- 자주 독감, 감기 걸리시는 분
- 혈압이 비정상적인 분
- 과체중이신 분
-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
- 어깨 결림이 심하신 분
- 위통이 심하신 분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우메켄
구매처

■ ANNANDALE • 웰빙모아 (703)256-5500 • 건강마을 (703)354-1515 • 엘리자벳 백화점 (703)508-7743 ■ CENTREVILLE • 웰빙모아 (703)830-7755 • 엘리자벳 백화점 (703)508-7743
■ ELLICOTT CITY • 롯데플라자 (410)750-9656 • 모드니에 (410)615-6167 • 힐링 마을 (443)878-9010 ■ CATONSVILLE • BESETO (410)303-5530 ■ GAITHERSBURG • GREEN COSMETIC (301)926-6307

한·일 함께 뛰어 결승... 한국계 고교 '고시엔 기적'

교토국제고, 사상 첫 꿈의무대 진출
한국인·교토주민 더위속 공동 응원
교가 '동해바다~' 합창, 일본 중계
교장 "내일 결승, 더 큰 기쁨 드릴 것"



일본의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 야구부 선수들이 21일 일본 효고현 고시엔구장에서 열린 전국 고교야구선수권대회(여름 고시엔) 준결승전에서 승리를 확정된 뒤 기뻐하고 있다. 교토국제고는 이날 아오모리야마다고교를 상대로 역전승, 처음으로 여름 고시엔 결승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포기하지마! 달려! 달려!”
머리에 ‘교토국제고’ 글씨를 새긴 빨간 띠를 두른 학생들이 연신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질렀다. 34도에 달하는 폭염이 쏟아진 21일 오전 11시 일본 효고(兵庫)현 니시노미야(西宮)에 있는 고시엔(甲子園) 경기장. ‘제106회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본선 준결승전 경기에서 한국계 학교인 교토국제고와 아오모리의 야구 명문 아오모리야마다고교가 맞붙었다. 1회 말 2점을 내주고 5회까지 득점을 올리지 못하자 교토국제고 응원석에서 아쉬움이 담긴 탄식이 이어졌다.

학생 138명 중 야구선수가 61명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오늘따라 플라잉(뜬공)이 많다”고 걱정스레 말하던 그때, 귀를 찢는 듯한 함성이 솟구쳤다. 6회 1사 만루에서 하세가와 하야테(長谷川颯,고2) 선수의 2타점 적시타가

터지며 동점이 됐다. 이어진 1사 1·3루에서 핫토리 후마(服部颯舞,고3) 선수의 내야 땅볼 때 1점을 더해 역전에 성공하자 응원석의 모든 이들이 일어나 서로를 일싸안았다. 마침내 9회 말, 경기 종료로 알리는 휘슬이 울리며 교토국제고 사상 첫 고시엔 결승 진출이 확정됐다.

교토국제고가 일본 고교야구 ‘꿈의 구장’으로 불리는 고시엔에서 기적을 일궜다. 이 학교에 야구단이 생긴 지 25년 만의 일이다. 학교 관계자들은 결승 진출을 “기적”이라고 말했다. 교토

국제고는 1947년 재일동포들이 세운 교토조선중학교로 시작해, 한국 정부의 인가(58년), 일본 정부의 인가(2003년)를 받았다. 학생 수 감소로 현재 중·고 과정 재적 학생은 160여 명, 학생 90%가 일본 국적이다. 고교 과정 138명 중 야구선수가 61명에 달하는 ‘야구 학교’지만, 에어컨도 없는 체육관에서 훈련용 야구공에 테이프를 감아 쓰는 형편이다.

시련도 많았다. 2021년 처음 고시엔 4강에 진출했을 때 한국어 교가를 트집 잡은 극우단체들의 협박 전화가 이

어졌다. 학교는 당시 ‘동해바다’로 시작하는 교가를 일본어권 ‘동쪽의 바다’로 표기해 주최 측에 제공했지만, 극우단체들의 협박을 피할 수 없었다.

이날 승리가 확정되고 교가가 흘러나오자 선수와 응원단이 일어나 한국어 교가를 합창했다. 관례에 따라 이 장면은 공영방송 NHK의 전파를 타고 일본 전역에 중계됐다.

이날 약 1200명 수용 가능한 교토국제고 축 응원석은 가득 찼다.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만으로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규모다. 남은 좌석은 재일동포와 한국인, 교토지역 주민들, 그리고 다른 학교 학생들이 채웠다. 가장 눈에 띈 건 응원악단. 야구부가 있는 여느 학교와 달리 악단이 없는 교토국제고를 위해 교토산업대학속고 학생들이 나섰다. 땀방 아래에서도 북·트럼펫 등을 연주하며 힘을 보탤었다.

졸업생 학부모까지 모두 와서 응원
지역 예선에서 교토국제고에 석패했던 경쟁교 교토세이쇼고 야구선수 20명도 ‘우정 응원’을 왔다. 일본에 유학 중인 조정빈(24)씨는 “일본에서 한국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라고 생

각해 경기를 보러 왔다”면서 “우승까지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직접 출전하지 못한 교토국제고 1~2학년 선수들은 이날 응원석에서 응원단으로 활약했다. 이와타 선수는 “일본인만이 아니라 한국분들도 많이 응원해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왔다. 이런 응원이 결승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교토국제고 학부모 모임의 요코다 회장은 “졸업생 학부모까지 모두 와서 응원했다”면서 “결승전에서도 힘을 내 우승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승리투수가 된 니시무라 잇키(西村一毅,고2) 선수는 아사히신문에 “올봄 선발대회(고시엔)에서 아오모리야마다에 패했던 만큼 두 번 다시 지고 싶지 않았다”며 “결승전은 평소와 같은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토국제고는 23일 오전 10시 도교를 대표하는 간토다이이치(關東第一)고교와 결승전을 치른다. 백승환 교장은 “동포분들에게 감동을, 교토국제고를 사랑하는 모든 분께 기쁨을 드릴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결승까지 최선을 다해 더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니시노미야=김현에 특파원

저축할 돈이 없다... 고금리·고물가에 순저축률 10년만에 최저

지난해 4%, 전년보다 2.3%p 하락
실질임금 감소하며 '여윌' 줄어
월평균 이자비용도 1년새 31.7% ↑
순저축률 상승하려면 시간 걸릴 듯

직장인 이모(35)씨는 지난해부터 적금 등에 넣던 저축액을 매월 60만원씩 줄였다. 고물가에 당장 밥값부터 올라가는 돈이 많아졌고, 주택담보·신용대출의 월상환액이 늘어나면서다. 이씨는 “3년 전에는 대출금리도 낮은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비도 줄어 저

축 여력이 꽤 됐다”며 “최근에는 빚상환에만 월급 절반을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금리·고물가 국면이 장기화하자 가계 저축 여력이 약 10년 만에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물가가 오른 만큼 가계 소비지출은 커지는데, 가계가 벌어들이는 돈은 이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빚을 낸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자 저축 여력이 줄어든 영향도 있다.

21일 통계청·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순저축률은 4.0%로 전년(6.3%)보다 2.3%p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3.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가계순저축률은 가계의 저축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다. 세금 등을 제하고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 가운데 소비·지출에 쓰고 남은 돈의 비중을 계산한다. 쉽게 말해 이 수치가 감소했다는 건 가계가 쌓아둔 여유돈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가계순저축률은 코로나19가 대유행이던 2020·2021년엔 각각 11.4%·9.1%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 시기엔 소비가 크게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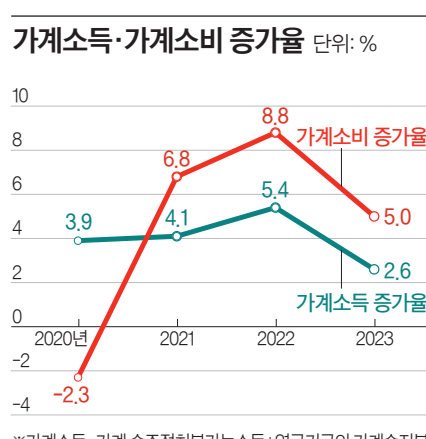


※가계순저축률=(가계부문 순저축÷(가계순처분가능소득+사회적현물이전수취+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10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된 영향이 컸다. 정부의 현금성 지원금이 가계 소득에 더해진 반면, 여행·숙박 같은 대면서비스 소비는 줄어들면서 저축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2022년부터 양상이 달라졌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가계의 저축 여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3.6%로 가파르게 올랐지만,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2.5% 오르는 데 그쳐 실질임금은 뒷걸음질쳤다.

이자 비용이 늘어난 것도 저축 여



※가계소득=가계 순조정처분가능소득+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가계가 납부한 연금부담금과 연금수취액의 차액)
※가계소비=가계 최종소비+정부의 사회적현물이전

력을 끌어내렸다. 지난해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이자 비용은 전년 대비 31.7% 급증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가계부채가 늘어난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 상황이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계가 짊어진 빚의 규모를 의미하는 가계신용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886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조8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분기 말 잔액은 1896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상태다.

가계순저축률을 계산할 때 쓰는 가

계소비(가계 최종소비+정부의 사회적현물이전)와 가계소득(가계 순조정처분가능소득+가계가 납부한 연금부담금과 연금수취액의 차액) 지표를 봐도 차이가 드러난다. 가계소득 증가율은 2022년 5.4%, 2023년 2.6%로 크게 둔화한 반면 가계소비 증가율은 2022년 8.8%, 2023년 5%로 소득 증가율을 웃돌았다. 물가가 오른 만큼 소득이 따라올라준다면 저축액을 줄이지 않아도 되겠지만, 소득 증가율이 다소 부진했던 것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소득이 소비를 따라잡지 못하면 가계는 저축을 즐기거나 빚을 지는 식으로 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는 가계소득 증가 폭이 조금씩 커져 가계순저축률이 상승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가상승률 둔화세가 이어지고 경기가 회복세를 유지하면서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점이 걸림돌이다. 주원현 대경연구원 연구실장은 “올해 성장률이 개선되는 건 반도체 수출 영향이 커 내수 회복세로 파급되는 데에는 시차가 더 있을 수밖에 없다”며 “회복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

오호정 기자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챗터 7·챗터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챗터 5·챗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인비질라인 Invisalign

다터 감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만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해드립니다

미동부 투어가이드
 에이전트(센터빌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inf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VISIT KOREA YEAR 2023-2024
한국방문의 모든것!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최고급 럭셔리
고품격 고국일주

마감 차 9/24~10/4 마감 차 10/15~10/25
 마감 차 10/22~11/1 (단풍특선)

올가을 마지막!!! 단풍여행

6차 10/29~11/8
 최고급 호텔! 리무진 버스! 모든 옵션 포함!
 10박 11일 / \$2990+항공

31년 전통 탑여행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고국투어!** 직접 모시고 갑니다.

특전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정동진 레일바이크/서귀포 유람선

최고급 호텔 숙박
 서울 롯데호텔/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여수 소노캄/거제 소노캄
 부산 그랜드조선/경주 라한셀렉트/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호텔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서울/군산/전주/보성/순천/여수/광양/하동/진주
 거제/부산/울산/경주/삼척/정동진/강릉/속초/제주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롯데호텔 서울 소노캄 여수 소노캄 거제 롯데호텔 제주
 라한셀렉트 경주 롯데리조트 속초 그랜드 조선 부산

고품격 고국일주와 동남아, 일본 여행을 한번에!

다낭 3박+고국 7박 (노옵션) 3차 11/9-11/20 \$3090+항공
일본 3박+고국 7박 4차 11/12-11/23 \$3590+항공

고국 1~5차 모두 제주 배고 다낭이나 일본을 갈 수 있습니다.
 고국+제주/다낭/일본 원하시는 일정으로 선택 가능.

연합상품

3박 4일 **서남권** 일출발 \$899+항공
 4박 5일 **동해권** 금출발 \$999+항공
 5박 6일 **서남+제주** 일출발 \$1499+항공
 9박 10일 **전국일주** 일출발 \$2149+항공

3박 4일 **동경** \$999+항공
 3박 5일 **오사카** \$999+항공
 8박 9일 **일본완전일주** \$2690+항공

Wonderful TOUR
 2024-25 Yearly Schedule

9/10~9/20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대강**
 9/18~9/26 정통 동유럽 8박 9일 \$3290+항공
 9/18~10/1 동유럽&크로아티아 발칸 13박 14일 \$4390+항공

9/23~10/3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대강**
 9/24~10/4 고품격 고국일주 3차 **대강** 10박 11일 \$2990+항공

9/25~10/1 크로아티아 발칸 6박 7일 \$2890+항공
 9/25~10/5 그리스&튀르키예 10박 11일 \$2890+항공

10/08~10/18 스페인&포르투갈 **대강** 10박 11일 \$3190+항공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대강**
 10/14~10/25 호주&뉴질랜드 11박 12일 \$3790+항공
 10/15~10/25 고품격 고국일주 4차 **대강** 10박 11일 \$2990+항공

10/22~10/31 튀르키예 성지순례(소아시아 7교외) 8박 9일 \$1990+항공
 10/22~11/01 고품격 고국일주 5차(단풍특선) **대강** 10박 11일 \$2990+항공

10/29~11/08 산티아고 순례 10박 11일 \$3590+항공
 10/29~11/08 고품격 고국일주 6차 10박 11일 \$2990+항공

11/27~12/01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 5일 \$1190+항공

12/07~12/19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2박 13일 \$1390(인사이드)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 6일 \$2390+항공
 12/23~12/29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6박 7일 \$2390+항공

1/14~1/24 파타고니아 10박 11일 \$6790+항공
 1/28~2/09 신비의 인도 12박 13일 \$3390+항공

2/04~2/08 코스타리카 4박 5일 \$1990(항공포함)
 2/12~2/23 호주&뉴질랜드 11박 12일 \$3790+항공
 2/17~2/26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 9박 10일 \$3590+항공
 2/20~3/05 아프리카&두바이 13박 14일 \$11,500+항공

3/17~3/29 남미 일주(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12박 13일 \$5490+항공
 3/17~3/24 브라질/아르헨티나 7박 8일 \$3190+항공
 3/23~3/29 페루 일주 6박 7일 \$2990+항공
 3/25~4/04 고품격 고국일주 1차 10박 11일 \$2990+항공
 3/27~4/05 일본 벚꽃축제 & 맛기행 9박 10일 \$3990+항공

4/14~4/20 불방학 특선 남프랑스 6박 7일 \$2990+항공
 4/15~4/25 고품격 고국일주 2차 10박 11일 \$2990+항공
 4/23~5/03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4/28~5/06 정통 동유럽 9박 10일 \$3390+항공

5/06~5/16 그리스&튀르키예 10박 11일 \$2890+항공
 5/13~5/23 스페인&포르투갈 10박 11일 \$3390+항공
 5/20~5/30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5/23~5/26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TMCI 고국 건강 검진

• 세브란스(기본검진) 한국국적 남 \$555/여 \$595 미국국적 남 \$720/여 \$770
 • 삼성서울병원(기본검진) 남 100만원, 여 113만원
 •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460
 •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610

현대아산병원/서울대병원/가천대길병원

동남아 여행

대한항공 한국경유여행
 동남아항공 특가세일

방콕/파타야	푸켓	하노이/하롱베이	다낭	대만	싱가폴
3박 5일 \$590+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워포사원, 플로세움, 파타야 야시장, 산호섬, 전통수상시장, 플로팅마켓, 황금절벽사원, 코끼리 트랙킹, 악어농장, 백만배위공원, 태극동산물	3박 5일 \$599+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핑안만 해양국립공원, 아프로디테스, 파동 야시장, 피피섬, 왓알롱 사원, 코끼리 트랙킹	3박 5일 \$590+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하노이, 엔드, 하롱베이, 허롱데마피크, 호치민명묘, 생할관, 비단광장, 한기동사원, 수상인형극	3박 5일 \$499+항공 출발: 격주 일요일 마블마운틴, 호이안, 투본강, 일본내원고, 전가사당, 풍홍의집, 광조화관, 바나힐국립공원, 후예성, 티엔무사원, 섀퍼사원, 다낭대성당	3박 4일 \$690+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국립고궁박물관, 자오궁, 101빌딩, 라오하계 야시장, 서문경거리, 태로산협곡, 화원칠성담 해변, 일월담, 구족문화춘, 아류레앙 국립공원, 자우편거리	3박 5일 \$790+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국립박물관, 가든스 바이더베이, 리버윈더스, 헨드스웨이 브릿지, 허지레인, 부기스재래시장, 마리아연경원, 차이타운, 센트럴, 실로스타비

Hong Jin-young
 홍진영 콘서트 티켓 판매처
 일시: 8월 31일(토) 8pm (개장: 6:30pm)
 장소: Live! Casino(21+ Event)
 문의: 레나고 (703-663-8534)

노동절 특선

2박 3일 \$699 8월 31일 출발
 레치워스/나이아가라 왓킨스글렌
 3박 4일 \$950 8월 30일 출발 **대원버스**
 천성/몽뜨랑블랑 몬트리올/퀘벡

동부관광 탑여행사 가이드가 직접 행사합니다!
미동부 나이아가라/토론토 천성/몬트리올/퀘벡 플래츠버그/뉴욕
 매주 일출발
 5박 6일 \$1350
 대원버스출발: 9/16, 9/30, 10/07, 10/14, 10/30

뉴욕 동부 명호 해안선 특선
뉴욕 1박 2일 \$399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동굴 \$125
 DC런치크루즈 \$169(주중)/\$199(주말)

서부관광

탑여행사의 자랑 **미서부 일주**
 서부의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일출발 8박 9일 \$1500+항공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일출발**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일출발**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일출발**

알래스카
 6박 7일 \$1550+항공 **일출발**

엘로스톤
 3박 4일 \$930+항공 **일출발**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가을 단풍 여행

3박 4일 **천성/몽뜨랑블랑 몬트리올/퀘벡** 10/7, 10/14 \$950
 당일 여행 **컴버랜드 기차여행** 10/26 \$159 (단체여행 환영)
 2박 3일 **스모키 마운틴** 10/24 \$859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방송 정쟁' 논란의 과방위 시·단통법 논의 회의는 0

과학·정보통신 사라진 과방위

18차례 최다회의... 방송4법만 통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114건 계류
"대화·협치 사라진 대표 상임위 돼"



날짜	주요 의안
11월	전체회의 야당 간사 선임
14-21일	전체회의 '방송 4법' 공방
6월 (68회)	25일 전체회의 야당 간사 선임, 과기부·방통위·방송위 현안심의
25일	안건추진위원회(박민·KBS 사장 중언·김정중·안건추진위) 방송위 현안심의
29일	전체회의 야당 간사 선임, 과기부·방통위·방송위 현안심의
7월 (48회)	24-26일 전체회의 방송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심
29일	전체회의 방송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
8월 (68회)	6일 야당 단독 방통위 현안심결
7일	전체회의 야당 단독 '방송 4법' 2·3차 청문회 개최 의결
8일	전체회의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9-21일	전체회의 '방송 4법' 1-3차 청문회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장악 3차 청문회'가 파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법 청문회'를 주장하며 퇴장해 여당 자리가 비어 있다. [뉴시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개최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관련 '방송장악 3차 청문회'는 또다시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작 20분 만에 "위법 청문회"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퇴장했고, 청문회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자리에 남은 상태에서 반쪽짜리 진행됐다.

지난 2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과 위원장 직무대행인 김태규 부위원장은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야당은 "국회를 우습게 보고 국민을 모욕한다"며 두 사람을 국회 증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과방위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과방위를 민생과 밀접한

과학 관련 일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22대 국회 들어 과방위는 3개월간 18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 최다 횟수 개최였다. 하지만 싸움판만 연달아 벌어졌다. 특히 방통위 2인 체제의 실효성 여부,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등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싼 정쟁이었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화하고 협치가 사라진 대표 상임위가 돼 버렸다. 민생을 위해 보여준 게 없어 국민에게 면목이 서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3개월간 18차례 전체회의의 총 시간은 112시간46분이었다.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 처리된 법안은 고작 4개였는데,

이른바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었다.

'방송 4법'은 공영방송 이사진 확대와 방통위 의결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었는 데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까지 밀어 붙였지만, 지난 13일 대통령의 재요구권(거부권)에 막혀 수포가 됐다. 합의 처리된 법안은 당연히 하나도 없었다. 결국 성과 제로였다.

과방위가 '방송장악 대 방송정쟁' 공방에 매몰되면서 피해는 엉뚱한 곳에서 생겨났다. 하루가 급한 과학기술 관련 법안의 심의와 처리가 철저히 외면된 것이다. 개원 후 21일까지 114건의 법안이 과방위에 계류됐으나, '방송 4법'을 제외하고는 단 한 건도 논의되지

못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본법, 소프트웨어진흥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과학기술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법안이 과방위 문턱에 걸려 휴면 상태에 들어갔다. 휴대전화 구매 비용을 낮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도 여야 이견이 없지만, 법안 심사는 감감무소식이다.

과방위에는 두 개의 법안소위가 있다.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소위와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다. 둘 다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통상 소위에서 법안을 깊이 있게 논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해야 하건만, 염불(법안)보다는 잣법(자기편 방송)에만 관심 있는 터에 전체회의만 뱅뱅이 돌리듯 열린 셈이다. 과방위는 방통위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연간 25조 원 안팎의 과학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심사라는 과방위의 핵심 기능도 정지되다시피 한 상태다.

22대 국회에서 여야 간 충돌이 컸지만, 다른 상임위에 비해 유독 과방위 행태는 심각하다. 개원 후 일곱 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과 택시기사 월급제 유예안을 처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전체회의에 앞서 지난 20일 소위

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법 특별회계 연장과 도시가스 요금감면 근거를 신설한 도시가스사업법 등을 처리했다.

이처럼 과방위가 공영방송을 두고 끝모를 충돌을 이어가자 야에 과학 분야와 방송 분야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과방위 소속의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과방위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미디어 위원회로 나누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전체 소관 기관은 81개에 달하지만, 이 중 10%에 불과한 방송과 통신 영역 8개 기관에 모든 이슈가 집중되면서 과학기술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철수의원도 "방송 이슈로 여야 간 심각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입법 논의가 소홀해지고 있다"고 동조했다.

과방위는 여태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도 받지 못했다. 여론의 못매가 이어지자 부랴부랴 법안 심사에 나설 참이다.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절차와 함께 계류된 법안을 상정한 뒤 다음 달 초 법안소위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여야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법안을 심사할 소위는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그게 국회법의 취지"라며 "과방위원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훈 기자**

'이재명표 세법' 상속세 배우자 공제·소득세 자녀공제 늘린다

야당 상속세·소득세법 개정 추진

상속세 일괄공제 5억→8억으로
배우자 공제도 2배까지 높이는 안
소득세 자녀공제 연령 20→25세로



역218만원(6월 기준) 수준의 아파트를 들 돈 월급쟁이를 위한 지원 제도"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예방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범중 개혁신당 당대표 비서실장. [뉴시스]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재명표 세법'이 구체화하고 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말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상속세 일괄공제를 기존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공제액을 각각 5억→7억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총 공제 한도는 기존 10억원에서 18억원(임광현 안), 15억원(안도걸 안)으로 각각 늘어난다. 서울 평균 매매가(12

상속받아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평균 매매가 이상인 한강벨트 아파트를 상속받더라도 세 부담이 크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2기는 중산층이 많은 근로소득자 세제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임 의원은 21일 자녀 기본공제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25세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청년 자녀

실명했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18일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소수의

초(超)부자보다는 다수의 중산층에 혜택을 주려는 세제 개편안이 쏟아지는 배경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귀속연도 기준 급여소득자는 2054만4714명이었다. 2022년 20대 대선 유권자 수(4419만7692명)의 46.5%에 달한다. 같은 이유로 민주당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 대표가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를 어떻게 손볼지도 관심이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면세 기준을 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자"고 말했다. 원래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개미투자자가 손해를 볼 정도로 세율을 수정하자는 주장이다. 25일로 예정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대표 회담에서도 금투세 논쟁이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 표는 지난달 당선 이후 1호 과제로 금투세 폐지를 꼽았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추가 당직 인선

을 발표했다. 정채우 수석부의장에는 이정문 의원, 정채우 상임 부위원장은 임광현·안도걸 의원이 임명됐다. 조승래 수석대변인과 함께 대변인단을 구성하게 될 대변인에는 한민수·황정아 의원이 유임됐다. 법률위원장은 기존 박규택·이용우 의원에 이어 이 대표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이태형 변호사가 새로 임명됐다.

◆**지명직 최고위원 영·호남 안배 목소리**
"이재명 2기 지도부"의 남은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를 놓고선 당내에서 영·호남 인사를 배치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의 지역구는 모두 수도권이다. 출신지를 따져보면 한준호 최고위원만 고향이 호남(전북 전주)이고, 나머지 4명은 영남이다. 당 일각에선 "호남이 민주당에서 떠나가고 있다"(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는 우려도 제기된다.

영남권 인사로는 대구시당위원장인 강민구 전 최고위원의 유임 가능성이 거론된다. 호남권 인사로는 전남·북 단체인 출신 등의 원외 인사 이야기가 나온다. **김효성·강보현 기자**



김철민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3층**



마이클 장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맞춤 용자의 달인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9명 숨졌는데 ... '시청역 역주행' 처벌은 최대 금고 5년형

(운전자)

인명피해 커도 가중처벌은 못해 "국민 법감정 맞게 입법 보완해야"

지난달 2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사망 9명 등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씨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정형은 최대 금고 5년형이다. 아무리 인명피해가 많아도 현행 법상으로는 가중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현)는 지난 20일 차씨를 구속기소하는 등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다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참사는 한 차례 운전으로 여러 피해가 발생했다.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인도에 서 있던 보행자 12명이 죽거나 다쳤고, 추가로 도로에 있던 차량 2대와 추돌하며 운전자 2명이 상해

를 입었다. 이에 따라 차씨는 '상상적 경합범(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질렀다는 의미의 법률 용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상적 경합범은 여러 범죄 중 처벌이 가장 무거운 하나의 행위만을 처벌한다. 차씨 역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법정형인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내에서 형량이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14명이 사망하거나 다친 이번 참사의 죄값은 한 명이 사망한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다루지는 셈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처벌의 한계가 확인됐다"고 지적한 이유다.

차씨와 같은 경합범의 가벼운 처벌 논란은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대형참사 때마다 반복됐다. 중한 범죄임에도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 501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다쳤지만, 당시 이준 삼풍건설사입

회장에겐 징역 7년 6월이 선고되는 데 그쳤다. 192명이 숨진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당시 기관사 역시 금고 5년형을 받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법무부가 다중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징역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 입법을 추진했다.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 각각의 죄에 따른 형을 모두 더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 시작부터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고, 결국 19대 국회 임기만으로 폐기됐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의 김지연 변호사는 "사업장 안전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가중처벌이 가능한 장치가 마련된 것처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 역시 가중처벌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코로나-온열질환... 일손 없는 응급실 2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전공의 이탈에 이은 코로나-온열질환 환자 증가로 각 병원 응급실은 '과부하' 상태다. 이날 서울 상계백병원에는 '인력 없어 응급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 [뉴시스]

75세 한 총리, 101세 광복군 생신날 손하트

'최고령 광복군' 오성규 지사 방문



75세 국무총리가 101세 광복군에게 큰절을 했다. 한덕수(사진) 국무총리는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보훈원을 찾아 국내 생존 최고령 광복군인 오성규 지사의 101번째 생일을 축하했다. 국무총리실 청년 인턴 4명과 함께 오 지사를 찾은 한 총리는 "지사님 덕택에 대한민국이 번영하는 나라가 됐다. 지사님의 공을 기억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0세를 맞아 일본에서 영구 귀국한 오 지사는 1923년 평안북

도 선천 출신으로 중학교 졸업 후 만주로 떠나 항일운동을 했다.

16세 때 한국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해 주태석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했다. 이후 미국 전략공작국(OSS) 훈련생으로 선발돼 군사훈련을 받다가 해방을 맞았다. 이후 좌우 이념 대립으로 가족에게도 신분을 숨긴 채 작사를 하러 일본으로 떠나야 했다.

박태인 기자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판사, 최태원·노소영 이혼 말아

서경환 대법관, 상고심 주심 맡아 '약혼 오거리 사건' 재심도 결정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 상고심이 21일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 서경환(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노태약·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함께 심리한다.

서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취임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서울지법 기업과 산·회생 전담 재판부 판사를 맡은 걸 시작으로,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법원장을 지냈다. 항소심 재판부 시절엔 기

존 법질서에 변화를 주려는 시도로 유명했다. 2014년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 영화로도 제작된 '약혼 오거리 사건' 재심 결정을 했다. 2015년엔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징역 3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대법관 취임 후인 지난 7월에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는 새 판례를 낸 다수 의견 쪽에 속했다.

이번 상고심에선 2심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 금액 1조 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줘야한다고 선

고한 게 적절했는지 주요 심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최 회장 장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진위, 노태우 정부 특혜로 SK가 성장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최 회장의 SK 주식이 최 회장 부친인 고(故) 최종현 선대 회장 증여금에서 비롯됐는지, 즉 특유재산(特有財産,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도 1·2심 판단이 엇갈린 쟁점이다.

지난 5일 최 회장 측은 500쪽 분량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며 2심 재판부의 재산 분할 근거를 전면 반박했다. 노 관장 측은 따로 상고하지 않았다. 김준영 기자

"디즈니+ 구독자는 소송 못한다" 폭로

디즈니월드 방문한 남성 사망 스트리밍 가입 독소조항 등의 디즈니 측 기각 요청했다 철회

디즈니가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 시 접어 넣은 구독자와의 중재 조항을 사망 관련 소송에 적용하려다 논란이 되자 이를 철회했다.

논란은 플로리다 올랜드 월트디즈니월드 복합 쇼핑센터 한 레스토랑에서 한 여성이 음식을 먹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 여성의 남편이 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폭스뉴스, CNN방송,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2023년 10월 5일 뉴욕대 의사였던 아시아계 탕수안(42)은 남편 제프리 피콜로와 올랜드 디즈니월드 내 복합쇼핑몰 식당 구역인 디즈니 스프링스의 아이리시 펍&레스토랑 래글런 로드(Raglan Road)를 찾았다.

이날 부부는 모처럼 휴가를 맞아 디즈니월드를 찾았지만, 아내 탕수안은 식당 음식을 먹은 뒤 곧 알레르기로 사망했다.

남편 측에 따르면 의사였던 아내 탕

수안은 평소에도 본인의 알레르기 증상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 이날 레스토랑에서도 웨이터에게 반복해서 견과류와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린 뒤 가리비, 양파 튀김, 브로콜리, 옥수수튀김을 주문했다고 한다.

탕수안은 식사 후 45분쯤 뒤 쇼핑 중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 탕수안은 몸이 견과류와 유제품 등 특정 물질에 과민반응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겪었다고 한다.

이후 남편 피콜로는 레스토랑과 디즈니를 상대로 5만 달러 이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디즈니 측이 피콜로가 2019년 디즈니플러스 1개월 무료체험 가입 당시 '디즈니와의 모든 분쟁 발생 시 중재절차(arbitration)를 밟는다'는 항목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디즈니 측은 이 조항이 월트디즈니 컴퍼니와 그 계열사를 포함한 모든 분쟁에 적용된다고 맞섰다. 심지어 디즈니 측은 이를 근거로 소송 기각까지 요청

했다.

피콜로 변호인 측은 1억5000만 명이 넘는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를 상대로 스트리밍 서비스와 무관한 소송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소셜 미디어 등에는 비난 여론이 빗발쳤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지난 19일 디즈니 테마파크리조트 사업부 조쉬 다마로 회장은 성명을 통해 "디즈니는 다른 모든 사안보다 인간성을 우선한다. 이번 일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상실을 경험한 가족을 위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소송 기각 요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안검하수 (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구인 리셉션리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nt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반려견, 반려묘를 위한-

신제품 세종 후코펫

- 5가지 특수영양성분, 3가지 기초영양성분으로 개발
- 면역력, 관절, 시력건강을 위한 가루타입의 특수영양제
- GMP의약품 제조기술로 최적의 효능을 이루도록 개발

주요 성분

Fucoidan: 항종양효과, 면역력증대, 체질개선효과

Bilberry Ex: 뛰어난 항산화작용, 시력건강, 소화기능강화

Glucosamine, Chondroitin: 관절염, 관절건강 증진, 통증완화,

L-Arginine: 혈관확장, 혈류흐름, 배독작용, 활력강화, 성장기 골격형성

신제품

하루 1스푼 5g (1개월분)

Sejongbiotech, Inc.
Biobach 세종바이오텍

703-256-7671

www.sejongbiotech.us | www.sejongbiopet.us

“김대중 대통령의 눈물·숨결이 깃든 집… 개인 아닌 국민의 것”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78-1. 金大中(김대중) 李姬鎬(이희호) 문패가 나란히 걸린 이 집은 격동의 현대 정치사의 상징이다. 1973년 DJ가 도쿄에서 납치됐다 구사일생으로 생환, 기자회견을 했던 곳이고, 가택연금 속에서도 민주화 투쟁을 이어갔던 저항의 현장이다. YS(김영삼 전 대통령)가 이끌던 ‘상도동계’와 함께 DJ의 ‘동교동계’는 민주화 투쟁의 상징이자 민주주의의 산실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 때까지 37년간 이용했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자택. 김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결씨가 지난달 커피 프랜차이즈 업자에게 이 집을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하라는 이 여사의 유언을 저버렸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뉴스]

DJ와 동교동계의 정치 역정과 숨결이 깃들어 있는 동교동 사저가 격랑에 휩싸였다. 3남 김홍결씨(21대 국회의원)가 최근 F 커피 프랜차이즈 업자에게 주택을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가족과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유산(자택+노벨평화상 상금)을 기념사업에 쓰라는 이희호 여사의 유지를 거스른 것은 물론 김대중기념사업회(약칭 김대중 재단·김대중평화센터(약칭 평화센터)와)의 약속과 합의도 일방적으로 묵살한 데 대한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분란의 발화점은 어디며, 사저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저 기증은 대통령 뜻이자 나의 뜻”

1992년 대선 패배로 정계 은퇴를 선언한 DJ는 영국 케임브리지로 떠나기 전, 당시 김성재 한신대 교수(현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에게 전 재산의 사회 환원 업무를 일임한다. 당시 DJ는 동교동 자택 외에도 서울 영등포, 경기 화성, 제주도에 지지자들이 기증한 약간의 땅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김성재 이사는 노르웨이 오슬로 평화연구소(PRIO)를 벤치마킹해 아태평화재단과 아태민주지도자회의 설립을 제안했고, 이는 DJ 정계 복귀와 대선 승리의 발판이 된다. DJ는 1998년 집권 후 영등포 등지의 땅을 처분한 돈으로 사저 옆에 5층짜리 아태재단 건물을 신축했고 퇴임과 동시에 연세대에 기증, 현재는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 이사는 “DJ는 공인으로서 사유재산을 소유하지 않겠다는 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동교동 사저는 거주 공간으로 쓰다 사후에 기증하기로 했다”며 “이 여사가 사저를 DJ 기념관으로 쓰도록 유언하면서 이 건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고, 내 뜻이기도 하다고 말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2월 유언장이 작성됐다. 이 여사, 장남 김홍일 전 의원 부인 윤혜라 여사, 차남 김홍업 김대중재단 부이사장, 3남 김홍결 전 의원이 모두 동의했고 서명 날인했다. >노벨상 상금 8억원 전액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고 >자택은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하며 >만약 지자체 및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보상금 중 1/3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고 2/3는 김홍일·김홍업·김홍결에게 균등 상속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김성재 이사와 평화센터 고문인 최재천 변호사도 집행인·증인 자격으로 확인 서명했다. (사진 참조)

홍결씨 반대로 서울시 인수 무산

사단은 2019년 6월 이 여사가 별세하면서 벌어졌다. 김홍결씨가 돌연 사저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유언장 공증 절차가 누락됐고 >민법상 부친이 사망할 경우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의 친족 관계는 소멸한다는 규정에 의거, 이 여사의 유일한 친자인 자신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 그해 8월 홍결씨는 동교동 사저를 자신 명의로 이전하고 하나은행에 예치된 예금 8억원도 인출해갔다. 가족·재단·평화센터, 누구와도 상의 없이 독단으로 처리한 것이다. 분쟁의 불씨가 이때 피어났다. 홍결씨가 단독 상속받지 않았다면, 사저는 서울시로 넘어가 지금쯤 기념관으로 개관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여사가 생전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서울시가 사저를 인수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밝혔고 박 시장이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 동석했던 김성재 이사는 “서울시와 인수를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홍결씨가 사저가 자신의 소유라며 서울시에 협의를 중단

3남 단독 상속, 커피업자에 매각 재단에 소유권 넘긴다 했다 번복 사저 보존·관리 잘 될지 우려 높아 “근현대 문화유산 등록, 보존하자”

할 것을 요구하면서 기념관 협상이 무산됐다”고 전했다.

뒤늦게 저간의 사정을 알게 된 김홍업 부이사장이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지법은 “유언장이 법적 효력은 없지만, 민법상 사인 증여(死因贈與) 계약의 의사 표시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였다. 사태가 유산을 둘러싼 형제간 다툼으로 비치고, 홍결씨 역시 상속세 체납에 대한 국세청 독촉 등으로 경매 위기에 처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자 김대중재단(이사장 권노갑)이 전면 나섰다.

“큰돈 가진 사람이 나타났다”

2022년 11월 김대중재단의 배기선 사무총장이 홍결씨를 수차례 만나 사저 보존과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을 설득했고 >홍결씨가 기념관 건립을 위해 동교동 사저에 관한 모든 권한(소유권)을 김대중재단에 넘기고 >홍결씨의 상속세·부채를 재단이 해결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홍결씨가 보내온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회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매매계약서와 부대계약서 초안도 작성했다. >상속세(17억원)·체납

부채 등을 계산해 22억원에 사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기념관 건립 부대비용과 운영기금으로 20억원을 책정했다. 매매 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이 명시된 문건은 현재 김대중재단에 보관돼 있다. 합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한 김홍업 부이사장은 법원에 냈던 가처분 신청도 취하했다.

그러자 2023년 들어 홍결씨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1월 김대중재단 문희상 상임 부이사장이 계약서에 서명을 받기 위해 홍결씨가 계약금으로 요구한 현금 3억4000만원을 가지고 홍결씨를 만났다. 하지만 홍결씨는 “큰돈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다” “대통령 사저를 컬렉팅하는 사람이 더 나은 조건으로 매입하겠다고 한다”며 재단과의 계약 체결을 미뤘고, 결국 지난달 2일 커피 사업자에게 사저가 매각됐다. 재단 관계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높였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 확인해봤더니 이미 매각된 뒤였다고 할 정도로 주변 누구도 눈치 채지 못했다. 배기선 총장은 “올 5~6월 경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홍결씨에게 물었다니 2~3명이 의사 표시를 한 건 있는데 결정된 건 없다.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고선 소식이 없었다”며 “이미 소유권이 다 넘어간 상태에서 매입자가 돈벌이 목적으로 사저를 이용하더라도 관여할 수 없게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동교동계 주변에선 매매대금 100억원 중 96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점을 들어 거액을 대출받아 사저를 사들인 매입자가 과연 사저의 보존·관리, 기념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다. 배 총장은 “동교동 사저는 김대중 대통령·이희호 여사의 피와 땀과 눈물·숨결이 깃든 집인데 어떻게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느냐”며 “사저는 어느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민주화의 상징이고 고향 아닌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일반에 무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DJ 서거 15주기 추도식이 열린 국립 서울현충원 DJ 묘역에서 홍결씨를 만났다.

“기념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사저를 매각한 것인가.

“기념관이 매각 조건은 아니었다. 그러나 매입한 분이 대통령의 삶과 업적을 기리는 민간 기념관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지 않았다.”

“기념관 하라는 게 유언 아닌가.

“여러분들이 나서서 시립·공공 다 추진했지만 결국 안 되지 않았다. 24억원이 근저당 설정돼 있는데, 서울시(오세훈 시장)는 먼저 근저당 설정을 풀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한다. 일산(고양시 정발산동 김대중 사저 기념관)을 보라. 고양시장이 (국민의힘으로) 바뀌니 중단되지 않나. 공공 기념관 설립에 매달리 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마지막 수단으로 민간으로 간 것이다.”

“근저당 설정액이 왜 그리 많은가.

“상속세 17억원에 각종 세금을 내지 못하니 국세청이 그 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했다.”

과중한 세금과 체납에 대한 압박 때문에 민간업자에게 매각했다는 해명이지만, 애당초 홍결씨가 단독 상속하지 않고 서울시로 넘겼으면 상속세 문제도, 지금 같은 분란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사저 되찾자’ 모금 운동 착수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은 “홍결씨는 매각 과정에서 재단이나 홍업 씨 등 가족과도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 매입자가 사저 보존·관리를 취지에 맞게 잘하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매각을 되돌려 사저를 원형 보존하는 것이 우선적인 1차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동교동계 원로와 뜻있는 국내외 인사들과 힘을 모아 사저를 되찾기 위한 모금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 여당의 움직임도 변수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5선, 인천 동구미추홀구)이 “동교동 사저와 김대중 정신은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여야가 함께 나서 역사적인 화해의 장소로 계승하여 국민 통합의 단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용산 대통령실도 여론 동향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마침 9월 15일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의한 법’이 발효된다. 법의 취지를 살려 동교동 사저와 YS의 상도동 사저를 동시에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등록, 지자체가 보존·관리케 하자는 윤 의원의 안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1987년 가택 연금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담판 너머로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김대중평화센터]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브리지원보험의 YouTube 채널

SpoonTV

보험 에이전트 모십니다!

전미주로 뻗어가는 브리지원 보험과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 브리지원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562-896-3400

우리말 바꾸기

‘원활’?, ‘원할’?

많이 쓰면서도 헷갈리는 단어가 ‘원활/원할’이다. “정부는 ‘원활/원할’하고 안정적인 정책을 위한 별도 조직 운영에 나섰다” “‘원활/원할’한 운영을 위해 사전 예약 서비스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등처럼 심심치 않게 나오는 낱말이지만 어느 것으로 적어야 하는지 아리송하다. 바른 표현은 ‘원활’이다. ‘원활(圓滑)’은 거침이 없이 잘되어 나감을 뜻하는 한자어다. ‘동글 원(圓)’자와 ‘미끄러울 활(滑)’자로 이루어져 있다. ‘활(滑)’은 거침없이 매끄럽게 일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원할’은 사전에 등재돼 있지 않은 낱말, 즉 존재하지 않는 단어다.

‘원할’은 묘난 데가 없고 원만한 것을 뜻하는 말로도 쓰인다. “인간 상호관계의 원활은 상대와의 충돌이 없음을 의미한다”처럼 사용된다. ‘활’을 써야 할지, ‘할’을 써야 할지 망설여지는 단어로는 ‘역활’과 ‘역할’도 있다. 이때는 ‘역할’이 바른 말이다. ‘역할(役割)’은 ‘부릴 역(役)’자와 ‘나눌 할(割)’자가 만나 이루어진 단어다. ‘역할’은 없는 낱말이다. ‘원활’과 같은 모양의 ‘역활’로 잘못 쓰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활인’/‘할인’ 역시 헷갈리는 단어 가운데 하나다. “활인/할인 행사가 어제 시작됐다”처럼 나올 때 어느 것으로 적어야 하는지 아리송하다. ‘나눌 할(割)’자와 ‘끌 인(引)’자를 쓴 ‘활인’이 바른 말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디아스포라 시선

제3지대



전후석
다큐멘터리 감독

확장되고 복잡화된 인물 설정과 서사 구조를 보여준다.

필자는 하나의 가설이 있는데 그것은 디아스포라적 세계관은 제3지대를 경험할 때 더 명확해 진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민자들은 자신이 떠난 모국의 세계관과 자신이 정착하여 살아가는 현지 국가의 세계관을 동시에 갖고 있다. 따라서 이민자들은 평생 한국에서만 살아가는 이들의 단일한 세계관보다 더 폭넓은 관점을 소유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분법적 세계관에 속박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익숙한 두 개의 환경에 우열을 나누거나 절대적 가치판단을 내리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가령, 필자가 ‘헤로니모’를 제작하며 관찰한 사실은 쿠바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대부분의 쿠바인은 미국에서 강경한 보수주의자가 된다는 것이다. 쿠바에서 공산주의의 폐해를 온몸으로 체험했기에 그 대척점에 있는 미국과 보수적 가치, 시장주의, 심지어는 반공주의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물론, 미국이 쿠바에 비해 객관적으로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국가일지언정, 미국 내

존재하는 여러 문제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옹호하거나,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려는 시도에 대해 무조건 ‘공산주의’라고 폄하하는 것은 이분법적 세계관이 낳은 대립적 사고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궁금했다. 이민진 작가 역시 제3지대였던 일본에서의 경험이 그녀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확장한 중요한 계기가 아니었을까 하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며 발견한 재미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또 다른 한인 디아스포라인 재일 교포 자이니치들의 복잡한 삶의 궤적과 중첩되며 그녀는 자신의 삶을 객관화하고 기존 프레임의 전환을 이뤄내지 않았을까 하고. 결국 그녀는 재미 한인 혹은 미국의 소수민족이라는 제한적 딱지를 초월해 더 큰 글로벌 한인 디아스포라의 일원으로, 더 나아가서는 한 명의 보편적 인간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 아닐까, 바로 그 질문을 하고 싶었다.

하나의 점이 면으로 거듭나고 그 면이 입체로 거듭나듯, 우리의 세계관 역시 고착을 거부하고 지속해서 확대 가능한 환경을 의식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물리적 환경일 수도, 아니면 지적, 영적, 예술적 영역의 환경일 수도 있다. 제3지대를 체험할 때 우리는 확일적 혹은 이분법적이었던 세계관을 더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관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편협한 판단과 대립적 선택을 유보하고 더 포용적인 시선으로 나와 타자에게 내재한 복잡성과 다양성을 지극히 응시할 수 있을 것이다.

J네트워크

32년 전쟁



한우덕
차이나랩 선임기자

‘32년 전쟁’. 오는 24일로 수교 32주년을 맞는 한-중 경제 관계를 요약한 말이다. 양국 협력 이면에는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있었다. 백색가전, 기계, 철강, 조선, 자동차... 중국 성장은 그 자체가 한국 산업을 추격하고, 추월하는 과정이었다.

디스플레이는 가장 격렬한 전쟁터였다. 시작은 TV-PC 등에 쓰이는 CRT(브라운관) 모니터였다. 우리 기업은 수교와 함께 중국에 진출했고, 약 70%의 시장을 차지하기도 했다. 중국은 거세게 추격했고, 2000년대 중반 한국 CRT를 따라잡았다.

위기의 순간 우리는 LCD로 갈아탔고, 다시 중국 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었다. 그들은 또 추격했고, 2010년대 중반 추월에 성공했다. 지금 우리 기업은 거의 포기 상태다. LG디스플레이의 광저우(廣州) LCD 공장 매각은 이를 보여준다.

그렇다고 끝은 아니다. LCD에서 밀린 우리는

또 다른 병기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로 열세를 극복할 수 있었다. 다시 그들의 추격이 시작됐다. BOE 등 중국 기업은 정부 돈을 끌어와 OLED 공장을 짓고, 한국 인재를 빼갔다. 그러니 전쟁이다.

지금 전환은 불리하다. 올 상반기 스마트폰·태블릿용 중소형 OLED 시장 1위 자리를 중국에 넘겨줘야 했다. 이 기간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50.7%인데 비해 삼성·LG 등 한국 기업의 점유율은 49.3%에 그쳤다(출하량 기준, 시노리서치 통계). 중국은 10%포인트 늘었고, 우리는 꼭 그만큼 줄었다. ‘OLED 고지’도 위험하다.

이대로 잡힐 것인가. 아니다. 업계는 중국 추격을 뿌리칠 차세대 기술로 ‘마이크로 LED’를 꼽고 있다. 각 기업은 기술 선점을 위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전쟁 양상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우리가 먼저 개발하고, 중국이 추격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 차가 없다. 중국은 2021년 이미 마이크로 LED를 국가 육성 항목으로 지정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올 1월 공업정보화부·과기부·교육부 등 7개 관련 부처가 공동 발표한 ‘미래 산업 혁신 발전 지원 의결’은 오는 2027년까지 이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에 올려놓겠다고 밝히고 있다. 오히려 우리보다 먼저 치고 나가는 양상이다.

디스플레이는 ‘32년 전쟁’에서 살아남은 거의 유일한 분야다. 반도체와 함께 독보적인 경쟁력을 지키고 있다. 이 전쟁에 밀린다면, 그 결과는 산업 종속일 수 있다. 정부와 업계가 손잡고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이유다.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기능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그릴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 변호사 임종범 *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리치몬드
페닌슐라
상담할영**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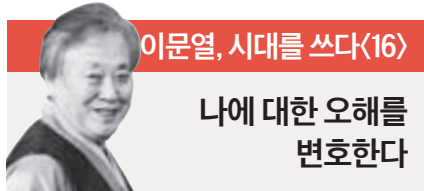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 사무장 김진주 *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내가 임수경에 “미친 계집애” 욕설? 100% 가짜뉴스였다



이문열, 시대를 쓰다(16)

나에 대한 오해를 변호한다

몇 해 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스스로 어떤 작가였다고 생각하느냐고 물길래 이렇게 답한 적이 있다.

“재수 없는 시대에 태어난 재수 없는 소설가. 봄은 짧고 겨울은 길고, 봄의 추억은 달콤하고.”

내가 만든 허구의 세계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모습은 굉장한 감동이었지만 불행히도 그 기간은 대단히 짧았고, 이후 세상과의 터무니없는 싸움이 길게 이어졌다는 뜻이었다.

나는 보수 논객도 아니고, 스스로 보수 논객이라고 자부한 적도 없다. 아무도 말을 안 해서 내가 나서다 보니 대표적인 보수 인사로 보였을 뿐, 내가 딱히 논쟁을 좋아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를 공격하면 효과가 있다고 봤던지 자주 시비에 휘말렸다. 그렇다고 내가 야박한 말을 서슴없이 해낸 것은 아니었다. 그때 그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주저 없이 바로 말해버린 건 있다. 독학자(獨學者)의 독단이었을 수도 있고, 부주의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가끔씩 욕을 봤다.

시비 끝에 욕먹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내가 하지도 않은 말로 오해가 생겨 시비가 붙으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 10여 년 전 해아려 보니 그런 경우가 열아홉 가지나 됐다. 대표적인 게 내가 1989년 방송 토론 프로에 나가 대학생 임수경씨를 두고 “미친 계집애”라고 표현했다는 오해였다.

결론부터 밝히면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미친 계집애”라는 표현은 내가 평상시 쓰는 말이 아니다. 단순한 오보(誤報)였는지 아니면 요즘 식으로 악의적인 가짜뉴스였는지 임수경에 대한 욕설 논란은 그야말로 어처구니없이 생겨나, 내가 우리 시대 가장 통탄스러운 현상으로 꼽는 ‘정정이 불가능한 문화’를 엮고 사실로 둔갑한 다음 끈질기게 나를 따라다녔다.

문제의 토론은 가톨릭 문규현 신부의 방북을 비판한 내 신문 칼럼으로 인한 논란을 소개한 지난 회에서 언급했던 MBC TV ‘박경재의 시사토론’이었다. 진작에 방북해 있던 당시 전대협(전국 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 임수경씨와 판문점을 통해 동반 귀환하기 위해 문신부를 북한에 파견한 가톨릭 정의구현사제단의 결정이 옳은 것이었는지, 종교의 정치 개입을 어떻게 봐야 할지가 토론의 초점이었지 임수경씨는 원래 토론 대상도 아니었다.

2시간가량의 토론 내내 내가 학생들



1989년 방송된 MBC TV ‘박경재의 시사토론’에 출연해 발언하는 이문열씨. 이 토론에서 대학생 임수경씨(가운데)를 두고 “미친 계집애”라고 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져 오랫동안 고통받았다. (사진 MBC)

1989년 ‘방북사건’ 때 TV토론 출연 ‘정정 불가능한 문화’ 유명처럼 퍼져 “전쟁 모르는 학생 성급한 행동” 언급 보수 아닌 ‘극우논객’ 프레임도 왜곡 판에 박힌 진보·보수 논리 동의 안해 옳고 그름에 따라 시시비비 가려

에 대해 조금이라도 나쁘게 말한 대목은, “아무것도 모르고 6·25의 경험도 없이 감정만 갖고 크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걸 찾는 학생들의 고통이 더 큰 것이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싶은데 (학생들의 성급한 방북 때문에) 막혀버려 집에서 한숨 쉬는 내 어머니 같은 사람의 고통이 더 큰 것이지, 신부님들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발언 정도였다.

어처구니없는 경로로 가짜뉴스 퍼져

그런데도 시사지 월간 말 11월호에 뜬 글없이 내가 임수경을 욕했다는 글이 실렸다. 문학평론가 이우용이라는 사람이 쓴 ‘이문열 연구-오만과 편견 그리고 허무주의’라는 글이었는데, 전문(前文)의 첫 문장이 문제였다.

“얼마 전 작가 이문열씨는 MBC TV의 박경재의 시사토론에 출연, 임수경양을 ‘미친 계집애’라고 표현했다.”

이우용의 글에서 임수경에 대한 언급은 위의 딱 한 문장뿐이었다. 어디선가

주위들은 얘기를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자기 글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 갖다 썼다 고밖에 볼 수 없었다. 나는 말지 기자를 만나 문제를 제기했다. 기자와 저자는 결국 방송 영상을 재검토한 끝에 잘못을 인정했다. 그 결과 12월호 155쪽에 “본지 11월호에 실린 ‘이문열 연구’라는 기사 중 임수경양을 ‘미친 계집애’라고 표현했다는 전문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 잡습니다.”라는 정정 보도까지 실렸다.

그런데도 임수경 욕설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한동안 나를 비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주 써먹는 공격 소재가 됐다. 2001년 당시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나를 비판한 글에서 임수경 욕설 논란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 역시 떠돌아다니는 글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그냥 가져다 쓴 것이었다.

지역성의 뒷 역시 나를 오래 괴롭힌 오해였다. 나는 평생 누구한테 “당신 전라도지?” 같은 거친 말을 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지역감정은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87년 대선을 앞두고 시

사지 신동아의 대담에서 전남 장흥 출신 소설가 송기숙 선생(2021년 별세)과 나란히 지역감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그래서였다. 신동아 11월호에 실린 대담 제목은 ‘지역감정, 그 뿌리와 악재’, 그에 딸린 작은 글씨체의 어깨 제목이 ‘영남 출신과 호남 출신 인기작가의 대담’이었다.

91년에는 광주매일(지금의 광주매일신문) 11월 1일 자 창간호 지면에, 아등해 같은 제목의 산문집으로 묶인 ‘시대와의 불화’ 원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80년대의, 동의하기 어려운 정신적 유행을 꼬집은 글이었다. 그 원고에 붙은 제목이 ‘이문열의 전라도 기행, 우리 시대 아픔 같이 생각해 본다’였다. 2001년 책 장례식을 전후해 내가 지역감정을 부추겼다는 일부의 주장이 옳다면 10년 만에 지역감정 반대론자가 선동가로 돌변한 게 되는데, 과연 그렇겠는가.

하지만 악의적인 소수가 만들어낸 나에 대한 지역성 프레임은 책장례식에 작용한 건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친일파 시비, 추미애가 되살려

나는 터무니없는 친일파 시비에도 휘말렸는데, 93년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진행한 젊은 작가와의 대담에서 내가 일제의 대동아공영권 실패를 해석해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북미의 나프타(NAFTA) 같은 경제 블록이 만들어질 때였는데, 비슷한 형태의 동북아 공영권 형성은 언제라도 필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과거 일제의 잘못으로 한 반도가 국제적인 세력 다툼의 각축장이 돼버리는 바람에 실패한 적이 있다는 게 내 발언의 요지였다. 이를 일부 언론이 앞뒤 맥락을 생략하고 보도하는 바람에 생겨난 시비였다. 친일파 시비 역시 오래 갔다. 2001년 ‘곡학야세’ 논쟁 때 추미애 당시 민주당 의원이 다시 써먹었다.

나에 대한 파가운 시선 가운데 내가 단순한 보수가 아니라 극우적이라는 비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극우적이라고 비판받았던 발언들을 내가 작성하고 했던 것은 아니다. 싸움이 붙어 감정이 격앙되면 도리 있나, 가장 마운 말

만 골라 쓰게 된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편드는 기준은 판에 박힌 진보와 보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아니라,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었다. 그래서 2004년 한나라당 공천 심사를 하며 “짜수가 노랄다”고 쓴소리했고, “한일합방은 축복이었다”는 모 인사의 발언을 두고 “우과의 자살골”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의롭거나 도덕적인 사회, 다 같이 부둥켜안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이상 같은 것이 내게 미심쩍게 느껴졌던 것도, 극우 발언의 돌출에 한몫했을 것이다. 나는 원초적인 생존투쟁의 세련된 형태가 현재 우리 삶의 모습이지, 천성적으로 인간에게 평화로운 습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동원하려는 자는 언젠가 군림하려는 자고, 어떤 주의(主義)가 어떻게 갈지라를 하고 있건 그 본질은 이기(利己)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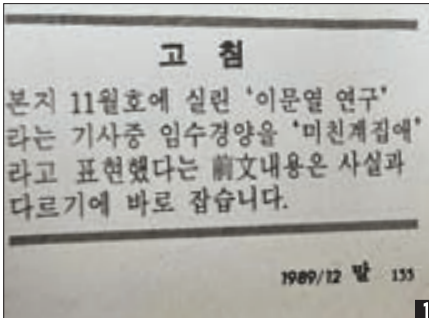
특히 다중(多衆)은 언제나 걱정스러웠다. 감정의 과장이 일어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히틀러 시대의 광장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가 결국 나치로 끝났고, 중국의 문화혁명 때도 수많은 사람이 광장에 모였다. 2002년 월드컵 때 시청 앞의 100만 인파를 보고 불길한 느낌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2002년 말 효순·미선 촛불집회,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박근혜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2016년 촛불집회 역시 하나같이 문제 있어 보였다. 2002년 촛불집회 때 모인 10만 군중 가운데 옹공세력이 3000명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고,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10% 지지율이 사회적 여론조작의 결과라고 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1987년 대선 때 노태우 찍은 건 냉소도 작용

87년 대통령 선거 때 노태우 후보를 찍었던 것은 지금 돌이켜보면 어차피 YS나 DJ가 아닌 노태우씨가 당선될 것 같다는 불행한 예측, 그에 따른 냉소가 작용했던 것 같다. 나는 당시 노태우씨의 당선을, 5공 정권의 취득 시효 완성으로 해석했다. 노태우씨를 차기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것은, 그 모태 격인 전두환 정권을 국민들이 추인(追認)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의 뒤를 이은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 바로 세우기, 그에 따른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처벌에 동의하기 어려웠다.

역사는 이미 이뤄진 일들의 축적이다. 그것을 훗날 바꾼다는 것은 시간을 지우는 작업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식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의 하나의 필연적인 법적처럼 성립하게 된다면 세상 참 무서워질 것 같다는 게 내 역사의식이였다.



1989년 월간 말 12월호에 실린 정정보도. 2 생전의 소설가 송기숙씨, 전남대 교수를 지냈고, 80년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결성에 관여했다. 대하소설 『녹두장군』을 썼다. 3 2016년 11월 광화문 앞 촛불집회 군중. 정치적 에너지의 집단 분출은 대통령 탄핵을 현실화시켰다. (중앙포토)



프렌차이즈 | 비즈니스 매매



주 6일 프렌차이즈
\$320K 인컴 \$1만
페어팩스 버지니아



주 6일 Deli
\$370K 인컴 \$2만
몽고메리 메릴랜드



주 6일 Deli
\$180K 인컴 \$1만
PG 메릴랜드




\$250K 인컴 \$1만



703.395.3123
CoStar Group | Power Broker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어르신 모십니다!



“정성과 돌봄이
다릅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양질의 한식과 간식
- 한국 TV 시청 가능
- 최고의 시설 (1인/1실)
-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 INOVA 병원 5분 거리

문의 703-980-9890

시 설

우리 여야 대표도 새겨들어야 할 “뭐라도 하자”

(Do something)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동훈·이재명 대표의 회담 형식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선 회담 생중계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불쾌감을 표하고 있다. 어젯밤 예정됐던 실무회담도 이 때문에 불발됐다고 한다.

우선 생각해야 할 대목은 이번 회담의 성격이다. 이번 회담은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정쟁만 반복되는 상황에서 새로 뽑힌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풀어보겠다는 마련한 자리다. 어디까지나 회담이지 토론이 아니다. 접점을 끌어내기 위해 서로 양보할 건 양

보하고,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게 회담이다. 이를 TV토론포럼 생중계하면 결국

타협하려고 하는 회담인데 생중계 대결 봐야 하나 의료붕괴 해법 등 국민에게 절실한 현안 점점 찾아야

대화라 아닌 대결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서로 얘기하고 싶은 것만 얘기하게 된다. 그동안 그래 왔고, 두 대표의 스타일도 그렇다. 두 사람 간 신뢰가 얼마나 없으면 이런 생중계 얘기까지 나왔을까 싶지만, 그럴수록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신뢰 쌓기 노력을 해야 한다. 싸움 그만하고 민생 좀 챙기라는 여론 때문에 만들어진 회담인데, 생중계 TV를 통해 지루한 싸움을 또 봐야 하겠는가. 토론은 나중에 토론이 필요한 때 하면 될 일이다.

두 대표가 진짜 신경 써야 하는 건 회담의 의제와 타협 의지다. 국민의힘은 ‘정쟁 중단’ ‘민생 회복’ ‘정치 개혁’을,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

금’ ‘지구당 부활’을 의제로 제시한 상태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다. 특히 저소득층·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시급한 현안이다. 최대한의 공통분모를 도출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접근을 하길 기대한다. 또 그동안 선거 때 말로만 떠들다 당선된 후에는 입을 닫아 온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해 보다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정치를 신뢰할 수 있다.

2004년 폐지한 지구당 제도를 부활하는 문제에 대해선 보통 국민이 얼마나 공감할지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두 대표 모두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라고 주장하나 그건 정치인의 논리일 뿐이다. 지구당 부활이 우리 사회 정치 과열입 현상을 더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분명히 새겨야 한다.

이번 회담에선 이미 의료 붕괴 수준에 이르고 있는 의료대란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미국 대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연말이 시한인 K칩스법(반도체산업 특별지원법)의 일몰 연장을 어떻게 할지, 제2의 코로나 예방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지 같은 일반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의제를 폭넓게 다루야 한다. 이런 문제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그러려면 회담 시간을 제한할 필요도 없다. 어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미셸 오바마가 말한 그대로다. “뭐라도 하자(Do something).”

영혼 굶아먹는 딥페이크 범죄, 위장수사 허용해야

여성 사진을 토대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인하대학교에서도 발생했다. 인권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합성사진이 유포된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활동한 남성 2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단체방 참여자는 1200여 명으로 추정되지만, 경찰은 아직 주범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4명인데, 실제 피해자는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특정 학교에 몰려 있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됐다는 점에서 지난 5월 공개된 ‘서울대 N번방’ 사건과 닮은꼴이다. 특히 경찰이 초동 수사에 소극적이어서 피해자가 추적 끝에 피의자를 특정할 때까지 비슷하다. 전문가도 아닌 피해자가 한 일을 경찰은 미리 텔레그램의 협조를 받기 어렵다는 핑계로 포기했다. 경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수사와 처벌을 위한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하면서 불법 합성사진 만들기가 지극히 쉬워졌다. 또 텔레그램 등 해외에 있는 서버를 이용해 은밀히 유통하고, 필요하면 흔적을 말끔히 지우는 일도 어렵지 않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수사관이 신분을 감춘 채 범죄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위장수사가 폭넓게 허용될 필요가 있다. 서울대 사건 당시 경찰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으로만 제한

된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전혀 진척이 없다. 국회에서도 지난 7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성폭력 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위장·합성 수사가 국민을 속이고, 일부러 범죄를 부추길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부작용을 통제할 방법을 깊이 고민해 보완하면 된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손 놓고 있으면 범죄와 피해자만 양산될 뿐이다.

제작과 유포뿐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하대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노력으로 털미가 잡힌 용의자가 경찰에서 “사진을 단순히 보기만 했다”고 주장해 결국 풀려났다고 한다. 무분별한 유포 예방을 위해서라도 단순 시청자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운로드와 소지자 처벌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정한 바 있다.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는 것 못지않게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고 유포하는 것도 영혼을 파괴하는 중범죄다. 피해자는 수치스러움을 넘어 인격적 살해를 당한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흑시 주변 사람이 볼까 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수사도 수사지만, 무심코 이런 범죄에 동참하고 있지 않은지 시민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윤 정부 경제정책, 길을 잃다

이상렬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은 호조인데, 서민 살림살이가 벼랑으로 내몰렸음을 알리는 지표가 쏟아지고 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이 1년 전보다 7.6% 늘고(7월, 11만 2000명), 소매판매액은 15년 만에 최대 폭으로 뒷걸음질했다(2분기, -2.9%). 국민연금이 깎이는 것을 감수하고 앞당겨 받는 조기 수급자(신규)는 지난해 11만 명을 넘어 2022년보다 약 90% 증가했다. 많은 서민이 보험을 깨고 카드론과 급전대출을 쓰며 버틴다. 지독한 양극화가 한국 경제를 붙잡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민생 회복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성과가 부진하다면 정책 방향성과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우선, 재정 건전성에 관해버렸다. 2024년 예산 편성이 시발점이었다.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2.8%)이었다. 올해도 재정 건전화로 경제정책 전반을 짓누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400조원이나 불어났으니 방만한 재정 운용의 정상화는 당연한 과제다. 그렇지만 물가 때문에 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건축마저 지나치면 민생 경기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이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내세우면서 각자 알아서 먹고 살라고 해버린 것”이란 김종인 전 국민 의원 비대위원장의 지적(중앙일보 8월 2일자 인터뷰)은 곱씹어볼 대목이다.

둘째, 부채 간 각자도생이다. 대표적인 게 금융과 부동산이다. 기준금리는 코로나 한창 때보다 3%포인트 높다. 불황인데 금리는 높고, 원리금 상환 유예도 끝났으니 자영업자들은 죽을 맛이다. 대통령실이 금리 인하를 종용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불안 등의 부작용을 야기한다. 금리 인하가 정부의 방향이라면 부동산 공급에 진작부터 초점을 맞추고 주택대출 제한을 엄격히 해야 한다. 그러나 공급 대책은 충분치 않았고 정책대출은 확 늘었다. 감독 당국은 대출규제 강화(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를 늦췄다. 대통령실, 기재부, 국토부, 금감원이 따로 노는 형국이었다. 결국 부동산이 뛰

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금리 인하의 여건만 나빠졌다.

셋째, 정책 간 모순이 심하다. 여권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율 인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세수 형편이 좋지 않다. 상반기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을 넘어섰다. 국제 수입은 세수가 감이었던 작년보다도 10조 원 줄었다. 세금 폐지는 재정 건전화와 부합하지 않는다. 최소한 세수 부족을 메울 대안이 있거나, 감세가 세입 증대로 귀결된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증시 활력 제고가 우선 목표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러나 그 경우라면 외국인 투자자가 문제 삼는 공매도 전면 금지를 하지 말아야 했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야 했다.

윤 정부가 벤치마킹하는 이명박(MB) 정부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수출 좋지만 서민 경기 악화일로
긴축 부작용에 정책 모순 심해
우선순위 다잡고 팀워크 다져야**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은 거저 된 것이 아니었다. 초대 경제사령탑이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관직을 오래 못 할 각오를 하고 환율 실세화, 경상수지 흑자, 종부세 폐지, 이 세 가지는 꼭 하고 떠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폐지 말고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종부세는 대폭 감면). ‘위기 때는 대외균형이 대내균형보다 우선’이라는 문제의식과 목표가 분명했다. 후임 윤종현 장관은 취임 회견(2009년 2월 10일)에서 그해 성장률 예상치를 당초의 3%에서 마이너스 2%로 대폭 낮췄다. 일대 쇼크였다. 그는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은 정부의 정직성”이라고 했다. 그랬기에 28조원 추경예산에 대해 국회 지지를 받아 경기 진작에 시동을 걸 수 있었다.

1900조원의 가계부채, 치솟는 아파트 값 등 정책 여건이 좋지 않다. 그럴수록 정책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경제부처 간 팀워크를 탄탄히 해야 한다. 정부가 길을 잃으면 ‘현금 살포’ 같은 포퓰리즘이 민심을 파고들게 된다.

수석는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 02-751-8888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www.joongang.co.kr 광고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물품: 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 (주)중앙일보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의 FINANCIAL TIMES, 일본의 NHK, 日本経済新聞, 中国의 CCTV, 台湾의 中視, 香港의 香港電台, 新加坡의 新加坡報, 马来西亚의 星洲報, 印度尼西亚의 雅加達報, 菲律賓의 菲律賓報, 泰國의 曼谷報, 越南의 河內報, 寮國的 萬象報, 柬埔寨의 金邊報, 緬甸의 仰光報, 台灣의 台灣日報, 香港의 香港日報, 澳門的 澳門日報, 新加坡의 新加坡報, 马来西亚의 星洲報, 菲律賓의 菲律賓報, 泰國의 曼谷報, 越南의 河內報, 寮國的 萬象報, 柬埔寨의 金邊報, 緬甸의 仰光報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허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종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5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 간편하게!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데이케어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 데이케어 드라이버
-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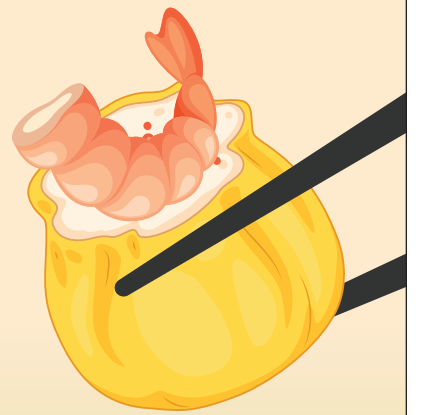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들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AUG. 22nd - AUG. 29th, 2024





TAI
DIM SUM
SERIES
타이 딤섬시리즈

SELECTED VARIETIES
14.11 - 17.64 OZ



NEW

~~\$6.99~~

\$5.99

~~\$9.99~~

\$8.99

WRAPPED SHRIMP/14.11 OZ



Sahmyookfoods



Soymilk with Blackbean & Calcium

삼육두유 검은콩칼슘

~~\$19.99~~ **LIMIT 4**

\$12.99

6.42 FL OZ X 24 EA/PKG



40 years
Since 1982
CELEBRATING 40 YEARS OF EXCELLENCE
H MART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G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G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파이낸스 & 연예/문화 Sports
부동산·금융·회계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August 22, 2024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한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당한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창문 틈만 잘 막아도 전기료 걱정 된다

여름철 주택 관리 이렇게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많은 홈오너들이 폭염으로 인해 주택 손상 혹은 냉난방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항공우주국(NASA)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달 22일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날씨로 기록됐다. 이처럼 극심한 무더위는 지붕 수명 단축, 전기 시스템 과부하, 단열재 손상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주택에 문제가 없는지, 보수가 필요한 곳은 없는지 등을 신경 써서 살펴봐야 한다. 극심한 무더위 속 홈오너들을 위한 주택 관리법을 알아봤다.

실리콘·스프레이폼으로 DIY 수리 산불대비 방화셔터 설치 고려할 만

▶단열 개선 최근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면 전기료도 함께 치솟는다. 여름철이면 각종 뛰는 전기 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주택 단열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열 상태가 좋지 않으면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해도 집 안을 시원하게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냉기가 외부로 새나가지 않고 외부 열기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은 창문, 문, 배관 주변의 틈새를 찾아 실리콘이나 스프레이폼으로 메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열기를 막고 냉기가 새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실리콘이나 스프레이폼은 아마존, 홈디포, 로우스(Lowe's)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조경 여름철 무더위를 시원하게 나기 위해 마당이나 정원에 나무를 심어 주택 건물 쪽으로 자연 그늘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집 주변에 나무 그늘이 드리워지면 전반적으로 주택 온도가 떨어져 냉방비도 절감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가지치기인데 평소 나뭇가지를 잘 정리하지 않으면 겨울철 우기 때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한다면 자주 가지치기를 해 화재 위험을 줄여야 한다.

▶커튼 업그레이드 창문을 통해 뜨거운 열기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블라인드와 커튼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때 햇빛을 필터링하는 커튼을 선택하고 이를 창문보다 넓게 설치하면



여름철 창문을 통해 뜨거운 열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낮 동안 블라인드와 커튼을 닫아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unsplash.com 제공)

증가하므로 산불 위험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비도 미리 해놔야 한다. 지붕을 비인화성 재질로 교체하고 죽은 고목은 즉시 제거해 적어도 주택 건물 30피트 내 인화성 물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화재에 대비해 창문이나 거실 통창을 다중 또는 강화 유리창으로 교체하고 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것도 현명한 투자다. 방화셔터는 창문에 설치하는 것인데 주로 강철이나 알루미늄과 같은 내열성 물질로 제작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방화셔터 설치 비용은 셔터의 종류, 크기, 디자인, 설치 장소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남가주에서 방화셔터 설치 비용은 창문 1개 당 약 500~1500달러 정도 소요된다. 이외에도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라면 스프링클러 시스템 설치도 고려해 볼 만하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MD 자이언트 No. 1 에이전트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쿼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 / 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CEO도 아닌데 수백억 연봉 남의 회사 키워야 사는 그들

수백억원 스타트업 투자유치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진다. 이 큰돈을 끌어오는 사람들 정체는 뭘까. 모험자본가, 벤처캐피탈리스트(VC)다. 단순 투자자가 아니다. 창업자와 함께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 생태계 최전선에서 미래를 앞당기는 동반자다. K커브 성장을 노리는 역법칙(거듭제곱법칙·the power law)의 신봉자로 스타트업을 빅테크로 키우는 연금술사이기도 하다. 현직 VC 7명 대면 인터뷰와 55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VC의 세계를 심층분석했다. VC의 선택을 받고 싶은 스타트업 창업자부터 옆동네 투자 비법이 궁금한 VC, 이 업계에서 일하고 싶거나, 스타트업이었던 지금의 빅테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궁금한 이들을 위해 VC의 모든 것을 담았다.

1971년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에 세쿼이아캐피탈을 세운 돈 밸런타인의 별명은 '실리콘밸리의 대부'. 그가 발굴한 구글·애플·엔비디아·오라클·인스타그램·왓츠앱·링크드인·페이팔 등이 실리콘밸리를 넘어 세계를 호령하고 있어서다. 그는 생전 스탠포드대 경영대학원 강연에서 "거대한 나무는 어떻게 자라나. 먼저 나무가 자랄 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땅 위에 나무를 심고 가꿀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로 VC의 역할을 설명했다.

투자조합을 꾸리고(펀드레이징), 투자회사를 찾고(딜소싱), 심사를 거쳐 투자를 집행하고, 사후관리를 한 다음 투자금을 회수(엑시트)해 이를 분배하는 모든 과정이 VC의 업무다. 투자심사 관련 전반을 담당하기에 '투자심사역', 줄여서 '심사역'이라고 부른다.

설문에 응한 국내 VC 55명 가운데 17명(약 31%)은 VC 업계에 진입하기 전 컨설팅·투자자문사에서 일했다. 23%는 스타트업에서 일했거나 창업자 출신이었다. 바이오나 헬스케어처럼 기술력에 사업 성패가 달린 분야는 VC도 전공 지식을 가진 경우가 많다. 정일영 신한벤처투자 팀장은 약학을 석사까지 전공했다. 간호학을 전공한 정나영 SBVA 책임은 전공을 살려 의료 AI 스타트업인 루닛에서 일했고, 이후 심사역으로서도 헬스케어 섹터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김하정 다성벤처스 책임심사역은 VC가 되기 전 오늘의 집·LG생활건강·클래스101에서 마케팅 업무를 주로 했다.

심사역들이 한순간에 꼽는 건 네트워크의 중요성이다. '우리는 심사를 하는 직업이 아니라 좋은 창업자들을 발굴해 내는 것(박은우 매쉬업벤처스 파트너)'이라 말할 정도다. 스타트업 대표들, 학계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가 어떤 기회로 돌아올지 모른다.

산업과 사람에 대한 호기심은 많을수록 좋다. 안혜원 카카오벤처스 선임심사역은 창업자들에게 질문을 계속 던져 "과고 과고 내려가다 보면 사업계

획서에서 보이지 않는 이면의 것들이 많이 나오기에 호기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철수 삼천리인베스트먼트 상무는 "주식·코인·부동산·미술품 상관없이, 투자에 어느 정도 관심과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VC에 재능이 있을 수 있다"면서 "뭘든 자기만의 논리로 투자해서 성공해본 경험이 있다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했다.

설문조사에서 VC 필수 역량으로 '커뮤니케이션 스킬'(50.9%, 중복 응답)이 가장 많이 꼽혔다. 정나영 책임은 "스타트업 대표를 만나 '투자하고 싶다'고 얘기할 때 대표가 우리 회사를 선택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설득 과정이고, 우리 내부 투자심사를 하면서 동의할 얻는 과정도 일종의 설득"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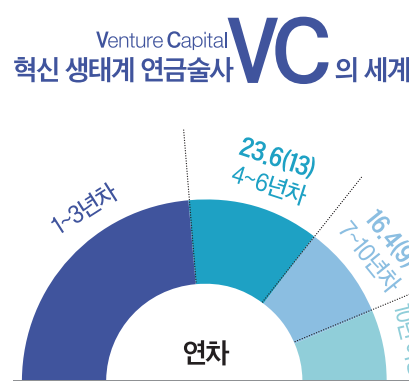
정일영 팀장은 "스타트업 대표뿐 아니라 회수 시장에 대해 얘기해줄 수 있는 여의도 증권사 직원들, 법·회계·특허 등 다방면 전문가 모두에게서 인사이트를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VC는 기본 연봉이라고 할 수 있는 '베이스 샬러리'에 투자 성과에 대한 성과급(인센티브)을 받는다. 일반적으로는 펀드가 청산될 때 수익 초과금의 비율을 회사와 VC가 나눠 갖지만, 개별 포트폴리오사의 엑시트 때도 인센티브를 주는 회사도 있다. 에이티엠인베스트 김제욱 부사장은 투자 성과 인센티브와 연봉을 더해 2022년 282억5600만원, 2023년 210억9500만원으로 2년 연속 200억원대 보수를 받았다. 그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스타트업이던 2016년 투자했고 유니콘이 된 뒤 2022년 엑시트하는 전 과정을 주도 했다.

VC들은 미래의 유니콘, 스타트업을 어떻게 찾아낼까. 박은우 파트너는 창업자와 '라포'(친밀감)를 형성할 정도로 오랜 기간 관계 맺으며 도움을 주는 것을 첫손에 꼽았다. 그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바로 투자하기보다 그 사람이 1~2년 뒤 창업할 때 투자하는 게 제



그래픽=김호준



총급여는?
성과급 포함, 1년차는 계약연봉 기준

총급여	비율	인원
4000만~7000만원	21.8%	12명
7000만~1억원	21.8%	12명
1억~1억3000만원		20(11)
1억3000만~1억6000만원		10.9(6)
1억6000만~2억원		12.7(7)
2억원 이상		12.7(7)

일 좋다는 생각으로 일한다"며 이 과정을 "너치링(nurturing·양육)"이라고 불렀다. 그는 "내 시간이 100이라면 예비 창업자를 만나는 데 60, 기존 투자자를 만나는 데 40을 쓴다"며 "아직 다들 모르지 않은 창업자를 마주할 때 그를 진심으로 존중할 줄 알아야 좋은 VC"라고 했다.

방경내 에이티엠인베스트먼트 심사역은 "나도 이 회사 가서 일하고 싶다"는 기분이 들 때 투자를 결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안혜원 심사역도 비슷한 의미로 "밸런트 마그넷(인재 유인력)"이라는 개념을 꼽았다. 그는 "스타트업을 키울 땐 누구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 인재를 끌어들이는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VC는 미래를 보는 업이다. 남보다 한 발짝 앞에 있다는 만족감이 크다.

정나영 책임은 "산업의 최선단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시장의 개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접한다는 점이 제일 좋은 것 같다"며 "새 기술도 쏟아져 나오고 새 산업도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산업과 시장의 '키 드라이버'가 무엇인지 계속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일영 팀장은 "다른 직업이라면 만나지 못할 사람들에게 배우고 성장하고, 다시 이를 투자에 활용하는 선순환이 이 직업의 가장 만족스러운 점"이라고 했다.

창업자의 회로애락을 함께하는 만큼, 창업자가 울면 VC도 같이 운다. 박은우 파트너는 "(창업자의) 고충이 전이될 때"가 힘들다. 그는 "실제로 전화하다가 우는 경우도 있고, 새벽 두세 시에 전화가 올 때도 있다"며 "어떻게 내가 해줄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감정은 전이되는 게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혜원 심사역은 "초기 투자자 보니 데스밸리(스타트업이 경영난에 직면하는 시기) 스타트업을 마주할 때가 있다"며 "이때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래 VC 채용의 문은 잘 열리지도, 보이지도 않았다. 공개채용이 적고, 지인을 통해 알아알음 채용이 이뤄지곤 했다.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었다. '유니콘 명가' 알토스벤처스가 지난 6월 창사이래 처음 심사역 공개채용을 진행했다. 추천 방식으로 진행된 전형에서 2명의 심사역을 채용했다. 최근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위벤처스 등도 공개채용 공고를 올렸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운영하는 '벤처투자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1~2주간 진행되는데, 현업 VC 강의, 인턴연계 등 출발을 도와준다. 설문 응답자 중 21%가 VC가 되기 위해 협회 교육을 받았다고 답했다. 현직 VC들도 블록체인 기술이나 엑시트 과정 등 특화 과정을 듣는다.

김남영·정용환·김민정 기자



QR코드를 스캔해 The JoongAng Plus에 접속하면, 혁신의 최전선을 탐색하는 '팩폴 오리지널'의 보다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페어팩스 타운홈 알렉산드리아 타운홈 페어팩스 싱글홈 페어팩스스테이션 싱글홈

\$875,000

방3, 화3.5, 차고2, 2001년산 End Unit, Super Location, Walk-Out, 새지붕, 2층 새카펫, New Appliances

렌트 \$3,200

방3, 화2.55, 차고1, 전체마루 한인 커뮤니티센터근처, 굿로케이션, Move-in Ready

\$880,000

방4, 화3, 차고2, Ranch 스타일, 1.12 Acre, All Brick, 새지붕&새 거터, 잘 가꾼 뒷마당 숲이 아름다운 집

\$1,250,000

방4/화3.5/차고2, 코너집, 굿로케이션, Many Upgraded, Library, Recreation Room, 아름다운 정원, 주인이 잘 관리한 집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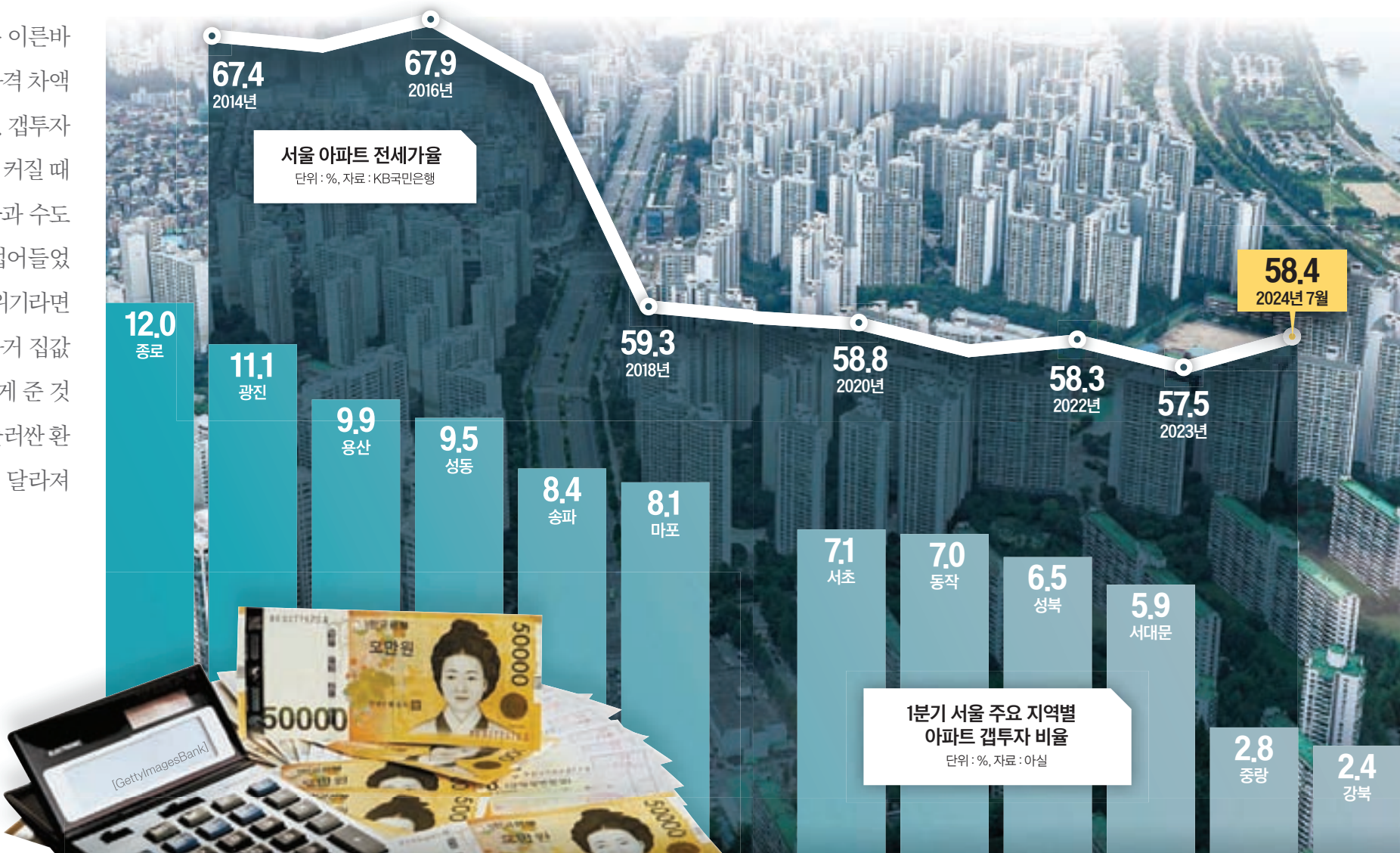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낮은 전세가율·실거주 트렌드 영향... '상승기=갭투자 증가'

전세금을 승계하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는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차액만으로 집을 사는 투자법이다. 갭투자는 자본이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때 유행하기 마련이다. 요즘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시장은 과열권에 접어들었다고 할 만큼 뜨겁다. 이런 분위기라면 갭투자도 늘어날 만도 한데 과거 집값 상승기에 비하면 갭투자가 크게 준 것 같다. 아마도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나 수요자의 투자패턴이 달라져서 그렇지 않을까 싶다.



거래량이 회복하며 아파트값도 상승세다. 사진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송파-강남구 일대. [뉴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갭투자 비중은 2021년 12월 60.1%에 달했다. 아파트시장이 실거주가 기준으로 9년 랠리의 정점을 찍은 시점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에는 38.9%로 떨어지더니 올 5월에는 37.3%까지 낮아졌다. 이처럼 갭투자의 비중이 높지 않은 이유로 2가지를 꼽고 싶다. 첫째, 아파트 전세가 비율(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높지 않은 점을 꼽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7월 현재 53.9%다. 바닥권이었던 지난해 4월 50.8%에 비하면 3.1%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이전 고점인 2016년 6월 75.1%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다. 첫 조사 월인 1998년 12월부터 지금까지 308개월 평균인 55.1%보다도 약간 낮은 수준이다.

945만원에서 6억1027만원으로 상승했다. 2016년 6월만 해도 갭투자를 하려면 1억5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가능했으나, 이제는 6억원 이상이 든다. 갭투자를 하기 위해선 동원해야 하는 절대 금액이 만만치 않은 셈이다. 이리다 보니 갭투자를 하고 싶어도 목돈이 많이 들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둘째, 정주(定住·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살) 목적의 집을 사려는 경향이 강한 것도 또 다른 이유가 아닐까 싶다. 지금 주택시장의 핵심 수요층은 밀레니얼세대(1981~1988년 출생)와 Z세대(1989~2009년 출생)를 일컫는 MZ세대다. 이중 가장 활발한 수요층은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밀레니얼세대다. 밀레니얼세대도 이제 나이가 들었다. 단순 갭투자보다 자녀를 키우고 살 집이 필요한 나이가 된 것이다. 베스트셀러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문득 떠오른다. 이 소설은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최고점을 찍었던 2016년에 나왔다. 책이 나온 지 벌써 8년이 지났다. MZ세대 맏언니 격인 김지영은 책 출간 당시 34세였다.

서울 외곽 전용면적 59㎡형(25평) 아파트 전세를 살았던 그녀는 당시 신희 티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는 불혹

부동산 인사이트

서울 전세가율 낮아 초기자금 부담 갭투자 비중 3년 새 60%→37%로

가장 활발한 수요층 밀레니얼세대 단순 갭투자보다 살기 좋은 집 선호

갭투자, 여전히 부동산 최대 관심사 집값·대출 규제 여부 최대 변수 될 것

의 나이를 훌쩍 넘어 42세의 중년이다. 회사 새내기로부터 자칭 '젊은' (젊은 핀대)라는 핀잔을 들을 수 있는 나이다. 그의 세대는 8년 전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나 경기, 인천 아파트를 전세 끼고 투자했다. 이젠 자녀들도 커가니 그때처럼 살지도 않을 집을 사기는 어렵다. 그 사이 돈도 좀 모았을 것이다. 지금은 맞벌이하기 좋은 도심 역세권 근처 신축이나 준신축 아파트를 선호할 것이다. 최근 서울에서 노·도·강보다 성동구 일대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은 이 같은 주택 수요층의 트렌드 변화와도 맞물려 있지 않나 생각된다.

여기서 주목할 한 점은 82년생 김지영 같은 40대의 급부상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수자 가운데 40대 비중은 전체의 31%에 달한다.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1월 이후 반기 기준으로 최고치다.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30대(32.5%)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40대의 비중이 월간 기준으로 처음 30%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9월(30.9%)인데, 올 5월에는 31.7%까지 치솟았다. 2021년 하반기 5.9%에 달했던 20대 구입 비중은 올 상반기에는 2.4%에 불과하다. 요즘 주택시장은 '쌈짓돈'으로 갭투자를 하기보다 살기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하려는 수요층이 또 다른 핵심축이다. 이런 경향은 밀레니얼세대의 '고령화'와도 맞물려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MZ세대가 갭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돈이 모자라 갭투자를 하더라도 나중에 직접 거주할 것을 염두에 둔다. 집값이 너무 비싸 당장 접근하기 어려운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주로 나타난다. 목돈 마련이 어렵거나 대출이자 부담으로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안고 매입하는 것이다. 단순 갭투자 그 자체가 최종 목표는 아닐 수 있

다. 돈이 모이면 2~4년 뒤 입주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다. 갭투자가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사다리 전략으로 이용되고 있는 셈이다.

전세보증금은 만기때 돌려줘야 할 부채 이런 갭투자가 앞으로 늘어날까? 변수는 집값 향배와 대출 규제 여부다.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집값 상승세가 가파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하면 갭투자는 증가한다. 갭투자는 집값의 기대 상승률과 비례하기 때문이다. 가격의 우상향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전세를 안고 매입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9월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가상의 가산금리(스트레스)를 부여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한다.

이는 대출 한도를 상정할 때 가상의 가산금리(0.75%포인트)를 부과한 한도를 더 줄이는 제도다. 가산금리는 대출 한도 계산에만 쓰일 뿐 실제 대출금리에 부과하지 않아 대출 금액만 줄이는 효과가 있다. 어찌 보면 전세금을 안고 투자하는 것은 세입자에게 무이자 대출로 돈을 빌려 사는 것과 같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4면 '갭투자'로 이어집니다

DC 건물 리스팅 하실 건물주 분들!

DC 창고 \$2.5M DC, NoMa Metro 상권	DC 사당센터 \$2.4M DC, Capital Hill 지역	DC 단독건물 \$1.5M Benning Rd. 개발지역	DC Mixed-Use \$1.6M Capital Hill 지역	DC 사당센터 \$4.5M Popeyes, 연인림 \$32만	DC NW 아파트 \$1.5M Metro 상권, 5 유닛
DC Georgetown \$1.5M Retail / Residential	DC H Street 단독건물 Union Station	DC Warehouse \$6.8M 67,000sf, Industrial	DC Warehouse \$5.8M 56,000sf, 창고 60에이커	DC Warehouse \$3.6M 냉장 / 냉동고, 창고	for SALE \$1.8M DC 3 유닛 주상복합

703.395.3123
CoSTAR GROUP | POWER BROKER

여권 사진 | 가족 사진 | 아기 사진 | 커플 사진 | 반려동물 사진 | 기념일 사진

한국에서 유명한 셀프포토 스튜디오가 6월에 센터빌 오픈했습니다!

“나만의 방 안에서 그 누구 눈치 안보고 편하게 찍을 수 있는 셀프 포토 스튜디오에 환영합니다”

예약 문자 / 전화: 703-400-7099

온라인 예약

14260M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www.Selfotostudios.com

“8·8 재건축 완화에 밀려” ... ‘찬밥’ 리모델링 더 움츠러든다

위축되는 리모델링 시장

재건축 완화가 공급대책 핵심 되자 리모델링 대신에 재건축 관심 늘어 주민들 의견 엇갈려 소송 벌이기도 용적률 높으면 리모델링도 해 볼만

경기도 안양 평촌의 목련 2단지 아파트는 최근 내부 송사를 겪었다. 2008년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했지만, 최근 재건축으로 바꾸려고 하는 일부 주민과 의견이 엇갈리면서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23일 재건축을 지지하는 주민들이 낸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 2단지도 일부 주민이 ‘재건축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최근 리모델링 조합 해산을 결의했다.

가뜩이나 위축된 리모델링 사업이 곳곳에서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8·8 부동산 대책’의 초점이 그린벨트 해제와 재건축 규제 완화로 좁혀지면서다. 재건축과 함께 주택 공급의 한 축인 리모델링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파성지 리모델링 공사 현장

재건축	리모델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근거 주택법
D등급 이하	안전진단 C등급 이상
준공 후 30년 이상	최소연한 준공 후 15년 이상
전면 철거 후 신축	공사 방식 부분 철거 후 증축
용적률 범위 내	증축 범위 기존 전용면적의 30~40% 이내
법적상한 이하	용적률 법적상한 초과 허용(건축심의)
없음	건축기준 완화 견폐율·용적률·높이제한 등
도로·공원·녹지 등 제공	기부채납 없음

18일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전국의 공동주택은 153개 단지 12만1520가구로 나타났다. 145개 단지(94.7%)가 수도권에 밀집했다. 최근 공사비 급등과 고금리 장기화로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이 떨어지며 리모델링이 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반짝 주목받았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완화 등 재건축 규제를 잇달아 완화하자 상대적으로 리모델링의

빛이 바랬다. 재건축 사업 시 3년 한시로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30%포인트 올려주기로 한 내용이 대표적이다.

서울의 한 리모델링 조합장은 “정부가 리모델링에는 관심이 없다. 규제 완화는 바라지도 않고, 절차라도 간소화 시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사업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리모델링은 건물을 받치는 기본 구조물은 그대로 둔 채 수선·증축하는 방식이다. 재건축은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부터 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은 준공 15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재건축은 기존 가구 수보다 많은 물량을 지을 수 있고 일반 분양을 통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사업 진행 절차가 복잡하고 임대주택 의무 건설, 초과이익 부담금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통상 기존 단지 용적률이 180% 이하면 재건축, 200% 이상이면 리모델링이 유리하다.

리모델링 업계에선 숙원인 ‘내력벽(건축물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설

계한 벽)’ 철거부터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내력벽을 철거하지 않으면 옆 세대와 확장이 불가능하거나, 최신식 아파트 구조로 변경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리모델링은 재건축·재개발보다 환경 파괴가 적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집 지을 땅이 부족한 만큼 리모델링은 주택 공급의 대안이 된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친절한 외계인, 그라츠 쿤스트하우스



김병철의 공간과 공감

비행선 같이 떠 있는 유선형 물체, 미끈거리는 푸른 피부, 더듬이 같이 튀어나온 돌기들. 외계의 생명체를 연상케 하는 그라츠의 쿤스트하우스, 예술회관이다. 오스트리아 제2의 도시 그라츠는 붉은 기와지붕으로 가득한 중세

풍 고도(古都)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거점이었다던 구도심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도시는 2003년도 유럽의 문화수도가 되었다.

그 기념사업으로 현상설계를 실시했고, 런던대학의 피터 쿡 교수팀의 당선안이 실현되었다. 쿡은 1960년대 전위적인 건축그룹 ‘아키텍트’의 주도자로, ‘입고 다니는 집’ ‘움직이는 도시’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발표해 명성을 높였다. 당시에도 황당했던 이 전위안들은 실현되지 못해 오랜 기간 ‘중이 건축가’로 지내다 66세에 비로소 그라츠에 대표작을 남기게 됐다. 수백 년 된 건물로 가득한 도시에 이처럼 기이한 건물을 제안한 건축가나, 이를 흔쾌히 수용한 시민들의 안목도 대단하다. 쿤스트하우스 본체는 1066개의 아

크릴-유리판으로 덮었다. 외피 판에 삽입된 930개의 형광 링은 도시를 향해 전시하는 초대형 스크린이 된다. 이른바 BIX(big pixels의 애칭) 프로젝트는 유명 예술가들이 참여해 공공 예술을 도시에 선물한다. 독특하고 신선한 건물은 그 자체로 현대 조각이고, BIX의 조명 형태에 따라 변화하는 건물 벽은 곧 미디어아트다.

15개의 더듬이 천장을 통해 자연광이 유입되는 전시홀은 밝게 빛나는 추상적인 공간을 이룬다. ‘바늘’이라는

이름의 최상층 전망 데크는 앞 강변 풍경이나 역사 도심과 소통하는 타임머신이기도 하다. 19세기의 유서 깊은 건물 ‘철의 집’도 개조해 미술관의 일부로 삼았다. 건축가 스스로 ‘친절한 외계인’이라 부르는 이 건물은 과거와 미래가 유쾌하게 조우하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어우러지는 문명 소통의 공간이다. 건축가는 젊은 날부터 꿈꿔왔던 이상을 원숙한 솜씨로 실현해 역사 도시에 활력을 선사했다.

건축가·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 1번 ‘어름철 주택 관리’에서 이어집니다

▶ 스마트홈 시스템

최근 스마트홈 시스템에 대한 홈오너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스마트 온도조절기와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하면 에너지 효율은 극대화하고 전기료도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글 네스트(Nest)와 같은 스마트 온도조절기를 설치하면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 사용자에게 맞는 최적 온도를 유지해 주고 외부 기온에 따른 실내 온도까지 조절해 준다.

또 스마트 창문 필름도 주목할 만하다. 이 필름은 태양광을 감지해 자동으로 색이 변해 열 차단 효과를 높여준다. 스마트 필름은 기존 창문에 부착하지만 하면 되

므로 설치도 간편하다. 아마존, 홈디포, 로우스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 태양광 패널

여름철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태양광 패널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가주는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지역으로 많은 홈오너들이 태양광 패널 설치에 관심이 많다. 태양광 패널로 생산된 전기는 주택 내 에너지 사용뿐만 아니라 남은 전기는 판매도 가능하다. 가주 정부는 태양광 패널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 혜택과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관심이 있다면 설치 업체에 알아보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3번 ‘갭투자’에서 이어집니다

세입자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 은행 대출보다 쉽고 절차도 까다롭지 않다. 요컨대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지면 비제도권 대출로 눈을 돌릴 수 있고 그 여파로 갭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반기 집값 회복세가 가팔라질지도 주목거리다. 이 경우 갭투자 역시 증가할 수 있으나 단기간에 과거 급등기 수준에 이를 것 같지는 않다. 30대와 함께 갭투자를 이끌었던 20대들이 이에 관해 관심이 덜한 데다 수십 채를 사들이는 기업형 갭투기꾼이 기승을 부리지 않고 있고, 밀레니얼세대 사이에서 실

거주 트렌드가 강한 점을 고려할 때 그렇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든지 변화무쌍하게 움직일 수 있으므로 예의주시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갭투자는 그 비중이 줄었을 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각종 부동산 앱에는 ‘갭가격(매매가격-전세가격 차이)’ 항목이 별도로 있을 만큼 갭투자는 여전히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사다. 몇 년간 갭투자가 유행한 이후 미국발(發) 고금리 쇼크로 값이 급락하면서 전세사기, 강동전세 같은 후유증을 앓았다. 갭투자는 기간의 길고 짧음이나 목적과 관계없이 위험이 큰 투자 방식이다. 갭투자

는 호황기에는 가격을 부풀리고 위기에는 전세와 매매가격 모두 급락을 부르는 뇌관이 된다. 남의 돈으로 지내는 이상향 기우제는 바람 부른 날 계곡에서 외줄 타기처럼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갭투자자인 집주인이 망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까지 불행에 빠트린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것은 자유이지만,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잠시 갭투자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만기가 되면 돌려줘야 할 부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융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용자에 맡겨 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마트 건너편 위치)

VA, MD, DC, NC, TX, PA, SC, FL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SB,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ML.B2501870; MD.2501870; NC.L-218065; VA.MC-7782; TX.2501870; PA.106823; FL.ML.D2525; SC.25018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870 www.nmlsconsumeraccess.org

숫세일, 포클로저 주택 Sale 전문

제임스 박 부동산

FAIRFAX TOWN HOME

\$710,000

GOOD CONDITION
방 3/화장실 2+2/ 차고1

DUMFRIES SINGLE HOUSE

\$580,000

GOOD CONDITION
방 3/화장실 2/ 차고 2 2007년도 건축

FORECLOSURE SINGLE HOUSE

\$690,000

GOOD CONDITION
SPRINGFIELD 방 4개 화장실 2.5

FAIRFAX TOWN HOME

\$660,000

GOOD CONDITION
방 3/화장실 2+1/차고 1

FAIRFAX TOWN HOME

\$665,000

GOOD CONDITION
방 3/화장실 2+2/차고 1

NVAR 2012 LIFE-TIME Top Producer
VA / MD Associate Broker
james2424500@yahoo.com

571.242.4500 제임스 박

VA FAIRFAX HQ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악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8월 **HOT** 리스팅

부동산 투자, 임대주택 관리의 어려운 고민, 악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의논해주세요.

주택 매매 / SALE

페어팩스

타운홈 방3+화3, 차고1 **\$70만불대**
타운홈 방3+화3, 차고2 **\$80~\$85만불대**

센터빌

타운홈 방3+화3 **\$45만불~\$60만불**
타운홈 방3+화3, 차고1 **\$60만불대**
타운홈 방4+화3, 조지메이슨 대학 부근 **\$630,000**

급매



\$56만
알링톤 콘도
방2개 2층짜리
교통좋은 매트로나 인접
타운하우스식 콘도

임대

애쉬번 타운홈 \$3500
방3+화3차고 2
즉시 입주가능



비엔나 \$3500
방3+/화3 차고 1
즉시 입주가능



락빌 \$3,500
방3+/화3 고 1



\$69만
우드브리지
니본 랜딩 싱글홈
방4+ 화3 차고2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부동산 가이드

상업용 부동산 지표



렉스 유
CBRE Korean
Desk 대표

초기 투자자본 대비 수익 가늠하는 척도 역할
운영비와 개발 전망 등 장기 요인 점검 필요



동산 투자에서 실제 수익을 나타내는 척도로 여겨집니다. 계산방법은 순수익을 초기 투자 자본으로 나누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에 초기 투자 자본은 다운페이먼트입니다. 따라서 연 순수익이 6만 달러인 매물을 다운페이먼트 40만 달러를 내고 구매했다면 캐시온캐시리턴은 15%인 셈입니다.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지표는 대부분 투자 첫째에만 적용이 용이합니다. 투자자들은 지표에 몰두한 나머지 매물의 장기적인 투자 잠재성 등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지표 이외 복합적인 요인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투자 매물 지역의 개발 전망, 인구 변화 추이, 경제 성장성 등 지역사회와 연계된 장기적 성장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 운영 비용에 대한 분석도 이행해야 합니다. 세금, 보험, 유지 및 보수 비용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가운데 임차인의 신용도 및 매물의 공실률도 투자 수익과 연계되는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트렌드와 전망에 대한 학습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는 수치와 지표를 활용한 철저한 사전 분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주요 지표로는 총수입배수(GRM), 자본환원율(CAP Rate-CAP 지수), 캐시온캐시리턴(Cash-on-Cash Return) 등이 있습니다.

GRM은 특정 건물의 총 렌트 수입을 구매 가격과 비교한 수치입니다. 주로 아파트 투자에 활용되며, 특정 매물의 구매가격이 임차로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냅니다. 구매 가격을 임차로 벌어들인 연 소득으로 나누면 GRM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특정 매물을 구매가가 120만 달러고 임차로 얻은 연 소득이 10만 달러라면 GRM은 120만 달러를 10만 달러로 나눈 '12'입니다. 다만 GRM은 매물 소유에 따른 지출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가격 산정 방법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CAP 지수(CAP Rate)는 매물 가격 대비 연 순수익을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순수익은 임대료 벌어들인 수입에서 운영 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CAP 지수는 GRM과 달리 순수익을 분모로 두고 구매 가격을 분자에 배치합니다. 일례로 1년 동안 순수익이 6만 달러인 매물을 120만 달러에 구매했다면 CAP 지수는 5%인 셈입니다.

캐시온캐시리턴(Cash-on-Cash Return)은 초기 투자자본 대비 가용 가능한 현금 흐름을 나타냅니다. 이에 따라 캐시온캐시리턴 지수는 부



이상규
뉴스타부동산발렌시아
명예 부회장

부동산 커미션 변동

셀러,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 부담 덜어
계약과 서식은 담당 에이전트와 상의해야

지난 몇 년 동안 셀러들은 부동산 업계 거대 이익 집단인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와 대형 부동산 그룹에 대한 집단 소송을 이어왔다. 이들 대형집단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커미션을 부풀리고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다.

지난 수십 년 동안 5~6%의 커미션을 셀러가 지급하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져 왔다. 관행 탈피를 근거로 법정은 반독점 소송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지난해 소송 합의에 이어 올해 3월 15일 이어진 소송에서 NAR는 약 4억 1800만 달러에 합의에 도달했으며,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짚어본다.

가장 즉각적인 변화는 커미션 금액 공개 구속력 약화다. 즉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제공해왔던 커미션 금액을 Multiple Listing Service(MLS)에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지난 13일 가주 리스팅의 약 4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규모가 큰 CRMLS에는 커미션 미공개 규정이 발효됐다. 여타 MLS에도 비슷한 시기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 이전 셀러는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지급 예정인 커미션 비율 관련 정보를 공개해왔다. 합의 후 셀러에게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 지급 강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바이어 에이전트들은 셀러를 포함한 셀러 에이전트, 바이어 등으로부터 커미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방식과 경로가 확대됐다는 뜻이며, 지난 7월에는 관

련 계약서 양식들이 최근 쏟아졌다.

시장은 혼란을 겪는 모양새다. 셀러들의 변화된 커미션 제공 규정에 대한 반응을 비롯한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의 변화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혼란이 지속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새로운 커미션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시장 상황에 발맞춰 변화를 거듭하다가 일정한 형태로 정착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관행 정착에는 적어도 1~2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셀러, 바이어, 에이전트 등 부동산 매매에 연루된 이해관계 당사자들은 새로운 계약 양식에 대한 정보 습득 및 적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바이어 에이전트는 바이어에게 매물 투어를 하기 전 커미션 관련 조항이 담긴 계약서인 Buyer Representation and Broker Compensation Agreement(BRBC)를 사전에 작성해야 한다. 셀러에게 보내는 바이어 에이전트에 대한 일종의 커미션 제공 요청서인 Seller Payment to Buyer's Broker(SPBB) 작성 시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셀러에 의해 사전에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이 책정되는 관행이 사라지면서 앞으로 바이어 커미션 관련 서식들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커미션 관련 규정은 보다 복잡해질 것이며,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부동산 매매의 주체들은 계약이나 관련 서식에 대해 담당 에이전트와 상의를 거쳐 혼선과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

부동산 이야기

AS-IS 상태로 주택 판매

주택매매에 관해 상담을 원하는 발렌시아의 한 손님에게 전화가 왔다. 건평은 약 2500스퀘어 피트. 방 4개, 화장실 3개와 넓은 마당을 가진 단독 하우스였다. 손님이 집을 산 지는 약 15년 정도. 아이들이 모두 학교 기숙사로 떠나고 부부 둘이서 살기에는 넓었다. 이들은 집을 팔고 가까운 인근에 타운 홈을 살 것이라고 했다. 단, 현재 이 주택을 새로 수리하거나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즉 'AS-IS Condition' 상태로 팔길 원한다고 했다.

AS-IS 조건이란 부동산 매매 시 매도자가 주택의 하자를 숨기거나 속이지 않되, 현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매수자는 집을

꼼꼼히 살펴보고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매도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집주인들은 번거로운 수리 과정 없이 빠르게 집을 매각하고자 AS-IS 조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런 경우 주택 상태에 따라 주택 가격을 낮춰야 할 수 있다.

위 손님이 의뢰한 주택은 1985년도에 건축돼 눈에 띄는 업그레이드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가격만 적절하다면 시장에 내놓은 지 한 달 만에 매매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었지만 이 주택은 업그레이드가 전혀 없는 수준이었다. 낡은

집의 상태에다 정원도 관리가 안 돼 잔디가 거의 사라져 흙바닥이 보였다. 의뢰인은 15년 전에 살 때도 지금의 상태와 거의 비슷했다고 했다.

이러한 상태로 AS-IS로 팔기를 원하면 주택 가격을 내려야 한다. 현재의 집의 상태가 바이어가 집에 입장하는 순간 마음에 들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바이어가 이 집을 사려고 하는 중요 포인트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상태로 매매할 시 그 포인트는 주위 시세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 밖에는 없다.

그렇지 않다면 기본적인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야 한다. 작은 업그레이드만 진행해도 AS-IS로 집을 판매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마룟바닥, 라미네이트 마루, 카펫, 그라나잇카운터톱, 스테인리스 부엌 기기, 페인트 등이다. 더 자세하게 덧붙

이자면, 핸드맨 정원관리사, 내부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 기본적인 전체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야 한다. 부엌 기기를 스테인리스로 바꾸고 그라나잇카운터톱을 들여와야 한다. 정원의 잔디를 새로 깔고 몇 그루 정도의 나무를 심는 것이 좋다. 집 전체 페인트칠을 하고 마룟바닥 혹은 카펫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불필요한 가재도구는 모두 버리고 집안을 정리하고 가구 배치를 새로 하는 것이 좋다. 부담이 된다면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페인트칠, 낡은 도어 손잡이 교체 등이 있다. 이렇게 해야 바이어가 집을 보러 왔을 때 환하고 깨끗한 실내를 보고 구매를 결정하게 된다. 1~2만 달러의 투자로 5~6만 달러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제이슨 상·발렌시아 Regency KJ Realty 대표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REALTY MARYLAND 리얼티 원 부동산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추천 주택 리스팅**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세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SOLD Bowie \$645,000 싱글홈, 방4, 화4, 차고2	UNDER CONTRACT Edgewater \$575,000 싱글홈, 방3, 화2, 0.45에이커	SOLD Rockville \$280,000 콘도	COMING SOON Perry Hall 싱글홈, 방3, 화2	UNDER CONTRACT Elkridge \$559,000 타운홈, 방4, 화3, 차고2
UNDER CONTRACT Elkridge \$950,000 싱글홈, 방5, 화3.5, 차고2	UNDER CONTRACT Ellicott City 55+ Luxury \$425,000 콘도, 방2, 화2, 1.438sf	UNDER CONTRACT Ellicott City \$475,000 타운홈, 방2, 화2.5, 차고1	COMING SOON Rockville 싱글홈, 방5, 화2, 차고2	SOLD Cockeysville \$470,000 싱글홈, 방4, 화2.5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NTED Elkridge 월 \$2,400 타운홈 방3, 화3	RENTED Sliver Spring 월 \$3,500 타운홈	RENTED Germantown 월 \$2,100 콘도 방2, 화2	RENTED Hanover 월 \$2,650 타운홈 방3, 화3, 차고1	RENTED Germantown 월 \$2,000 타운홈 방2, 화3 (지하실 제외)	RENTED Glen Burnie 월 \$1,750 콘도 방2, 화1
--	--	---	--	---	--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World Bankcard Service가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로 찾아왔습니다.



1 새로운 크래딧 카드 기계:
결제 중 끊김과 오랜 결제 시간 등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결제를 보장합니다.

2 새로운 POS 시스템:
효율적이고 신속한 POS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간편한 운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3 더 낮은 카드 수수료: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
사장님들을 위해 더 낮은 카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World Bankcard Service와 함께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을 이루어가십시오. 더 많은 정보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함께하는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함께 성장해나가는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 703-225-5500, 1-800-927-5675 | FAX 703-225-5507
10855 FAIRFAX BLVD 3rd FL., FAIRFAX, VA 22030
World Bankcard Service

'개막 축포' 이강인, 베스트11에 ... 그래도 못 웃는 이유

(프랑스 매체 선정)

PSG, 간판스타 이적 잦아 자국 유망주 발굴로 정책 바꿔 '외국인 선수' 이강인 방심 못해 손흥민, EPL 시즌 첫 경기 '침묵'

개막전에서 골을 터뜨린 '골든보이' 이강인(23·파리생제르맹)이 1라운드 '베스트11'에 뽑히면서 새 시즌을 산뜻하게 출발했다.

프랑스 스포츠 전문 매체 레퀴프는 20일(한국 시간) 2024~25시즌 프랑스 리그1 개막라운드 베스트11을 선정하면서 이강인을 그중 한 명으로 뽑았다. 이강인은 4-2-3-1 포메이션으로 이뤄진 베스트11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를 꿰찼다.

그는 지난 17일 열린 르아브르와의 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전반 3분 만에 왼발 슈팅으로 선제 골을 터뜨리며 PSG의 4-1 대승을 이끌었다. 이강인의 골은 올 시즌 리그1 전체 '1호 골'로 기록됐다.

지난 시즌 PSG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은 주전 급으로 뛰면서 36경기에 나와 5골 5도움을 기록했다. 올 시즌부터는 불발이 주전 멤버로 올라서면서 기대감이 더 커졌다. 그렇다고 방심할 수 없다. 지난 시즌까지 PSG에는 리오넬 메시(인터마이에미), 네이마르(알힐랄), 킬리안 음바페(레알

마드리드) 등 유럽 정상급 스타들이 활약했지만, 이들이 팀을 떠나자 구단이 정책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PSG 구단은 '스타 군단'에서 '메이드인 파리' 구단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은 르아브르와의 개막전에서 신인 공격수 이브라힘 음바예를 기용했다. 만 16세 6개월 23일의 나이에 PSG 유니폼을 입고 출전한 음바예는 PSG 구단 최연소 데뷔 기록을 갈아치웠다. PSG 구단과 엔리케 감독은 새 시즌을 맞아 자체적으로 키운 어린 선수들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PSG 유소년 팀에 몸담았던 유망주 음바예도 어린 나이에 1군 무대에 데뷔할 수 있었다.

음바예 이전에 구단 최연소 선발 출전 기록을 세웠던 18세 미드필더 워렌 자이르 에메리도 이날 르아브르전에 선발로 출전했다. 또 지난해 데뷔한 17세 왼쪽 풀백 요람 자그도 선발로 개막전을 소화했다.

리그1에 따르면 이날 PSG 선발 출전 선수의 평균 연령은 만 22세 192일에 불과하다. 한국 대표팀에서는 여전히 어린 축인 만 23세 이강인이 PSG 선발 명단에서는 중교참 축에 들어간다. 리그1은 "음바예가 PSG의 새 역사를 쓴 건 '메이드



르아브르와의 프랑스 리그1 개막전에서 선제골을 터뜨린 PSG 이강인(왼쪽). 올 시즌 PSG에는 젊은 선수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주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인 파리'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수도 구단의 트렌드를 반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부진할 경우 '외국인 선수'인 이강인도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32)은 20일 자신의 10번째 프리미어리그(EPL) 시즌 첫 경기를 치렀다. 토트넘은 이날 영국 레스터의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스터 시티와의 2024~25시즌 EPL 1라운드 원정경기에서 1-1로 비겼다. 손흥민은 승격 팀인 레스터시티를 맞아 주포지션인 왼쪽 윙어로 선발 출전해 후반 추가 시간 2분까지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다.

2015~16시즌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이날 경기로 EPL 10번째 시즌을 맞이했다. 이전 독일 분데스리가(함부르크-바이어 레버쿠젠) 경력을 더하면 유럽 1군 무대에서 맞는 15번째 시즌이다. 이날 손흥민은 골 욕심을 내기보다는 동료에게 골 찬스를 열어주는 팀플레이를 선보였다. 풋볼 런던은 "몇 차례 번뜩이는 순간이 있었으나 충분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올 시즌 손흥민은 리그 공격 포인트 '200고지'에 도전한다. 지난 시즌까지 그는 공격 포인트 182개(120골 62도움)를 기록했다.

피주영 기자

한옥은 집집마다 계절마다 달라... 10~20년 걸려 찍었다

"전국이 장마전선 영향을 받겠다"는 일기예보를 들으면 사진작가 이동춘(62)은 SUV 차량에 시동을 걸고 남쪽으로 향한다. 장마가 소강상태일 때 물안개가 피어오른 경북 안동의 고택들이 얼마나 몽환적일지 상상만 해도 가만있을 수 없어서다. "막상 내려가면 비가 그쳐 쨍쨍하곤 해요. 촬영 허탕치는 게 열 번, 제대로 찍는 건 한두번? 그저 기다림과의 싸움이지요."

그렇게 30년을 매달린 그가 최근 3권의 한옥 책을 동시에 냈다. 사진집 『담방주초 위에 세운 집』 『궁궐 속의 한옥』과 2021년 출간했던 해설집 『한옥·보다·읽다』(공저 홍형욱)의 영문판이다. 『담방주초...』는 민가나 서원·향교 사진이 주축이고, 『궁궐 속...』는 창덕궁 내 연경당·낙선재의 사시사철을 담았다. 모두 10년, 20년씩 걸려 '기다림과의 싸움' 끝에 포착한 한옥의 멋과 아름다움이 담겼다.

지난달 31일 서울 북촌 한옥마을에서 만난 그는 "전통 한옥은 손글씨 같다"고 했다. "같은 재료란 게 있을 수

없고 같은 목수가 지어도 다 다르다"면서 "집집마다 다르고 계절마다 다르니 아직 찍을 곳, 알릴 곳이 많다"고 말했다.

잡지 '행복이 가득한 집' 출신의 그가 한옥 촬영에 본격 뛰어들 건 2004년 고속철도(KTX) 개통이 계기였다고 한다. 프리랜서 사진가로 전국의 KTX 노선·역사 홍보 촬영을 맡았는데, 드론이 없던 시절에 교각 위의 열차를 찍으려면 산중턱까지 올라가야 했다. "소위 명당 자리엔 항상 무덤 아니면 제사(第舍·산소를 돌보고 제사 음식 준비 등을 하는 살림집)가 있는데, 거기서 저녁 짓는 연기라도 모락모락 올라오면 그렇게 정겨울 수가 없어요. 막 40대 들어선 터라 앞으로 난 뭐할까. 누구는 소나무, 누구는 야생화를 죽자고 찍는데 그럼 난 한옥을 찍자 싶었죠. 이동춘이 찍는 한옥 사진은 뭔가 다르다는 말을 이미 들던 터였으니까요."

마음먹고 찾아가던 안동 고택은 각오했던 것 이상이었다. 부모가 북한에서 월남한 그에게 족보를 따지는 게 낯설



경북 안동 군자마을 후조당의 들어열개문을 열어 들춰내 걸어둔 풍경. 조선 임진왜란 전에 지어진 고택으로 1974년 안동댐이 생기면서 수몰 위기에 처한 것을 현재 위치로 옮겨왔다. [사진 이동춘]

었고, 1년에 수십 번씩 도포에 갓 차림으로 제사 지내는 풍경은 "조선 왕조가 망한 지 100년이 넘었는데 이게 뭔가" 싶게 어리둥절했다. 1~2년이면 그럴 듯한 한옥 사진 건질 거라 생각한 게 오산이었다. 이색 풍경에 "이건 왜 이런 거죠?" 물어도 대꾸 않는 이들 속으로 파고들어야 했다. 모르는 여자가 종가(宗家)에 얼씬거리는 걸 못마땅해 하는 어르신을 설득하며 짧은 머리에

남자옷 차림을 자처했다. "제례 근접 촬영을 위해 문턱을 넘는 데 3년 걸렸다"고 했다.

그래선지 그의 한옥 사진은 어딘가 다르다. 밖에서 힐끗대며 찍는 게 아니라 안방에 툇 걸터앉아 밖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대를 이어 같은 집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생활에서 수백년 묵은 아름다움을 잡아낸다. "그분들은 매일 사는 곳이라 '이렇게 예쁘지 미처 몰랐

다' 해요. 안방 벽지에 깃든 햇살을 따사롭게 잡아낸 사진이 있는데, 그 집 주인이 '이건 우리집 아니고 옆집 같다'고 해서 제가 정확한 촬영 시점까지 꼭 짚어드린 적도 있어요."

그 멋을 그는 차경(借景, 경치를 빌리다)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집의 창과 문을 액자처럼 활용해 밖의 경치를 잠시 빌려 감상한다는 뜻으로 전통 한옥의 건축미학이기도 하다. 이런 창나의 자연을 카메라에 담으려면 어지간한 상상력과 노력은 안 된다. "고즈넉한 마루에 앉아서 이 풍경에 눈이 오면 어떨까 상상했다가 눈 소식에 냅다 달려가는 거죠. 그렇게 수시로 드나들려면 그 집이 제집 같아야 하고 그분들도 저를 내치지 않으셔야 하니, 사진 찍기 앞서 정을 쌓는 게 우선이었죠."

"여태 찍은 한옥이 150채가 넘는다"는 그는 그간 LA한국문화원을 비롯해 독일과 헝가리, 불가리아 등에서 전시회를 열었고 올해 초엔 프랑스 파리의 갤러리에서 전통 한지에 프린트한 고택 사진을 선보여 주목 받았다. 이번에 『한옥·보다·읽다』 영문판을 낸 것은 세계에 한옥의 멋과 특색을 보다 널리 알리고 싶어서다. 강혜란 문화선임기자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 1. 저렴한 비용
- 2. 편리한 플러비스
- 3. 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 부터 지금까지)

웹사이트 제작, 구글광고 & SEO, 고객 리뷰관리, 소셜미디어 광고, 문자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기타

새고객, 매출 증가가 잘 안되시나요? 내 사업 불경기 탈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suit yourself; 마음대로 하세요

(Joy is talking to her husband Brad ...)

(조이가 남편 브래드와 얘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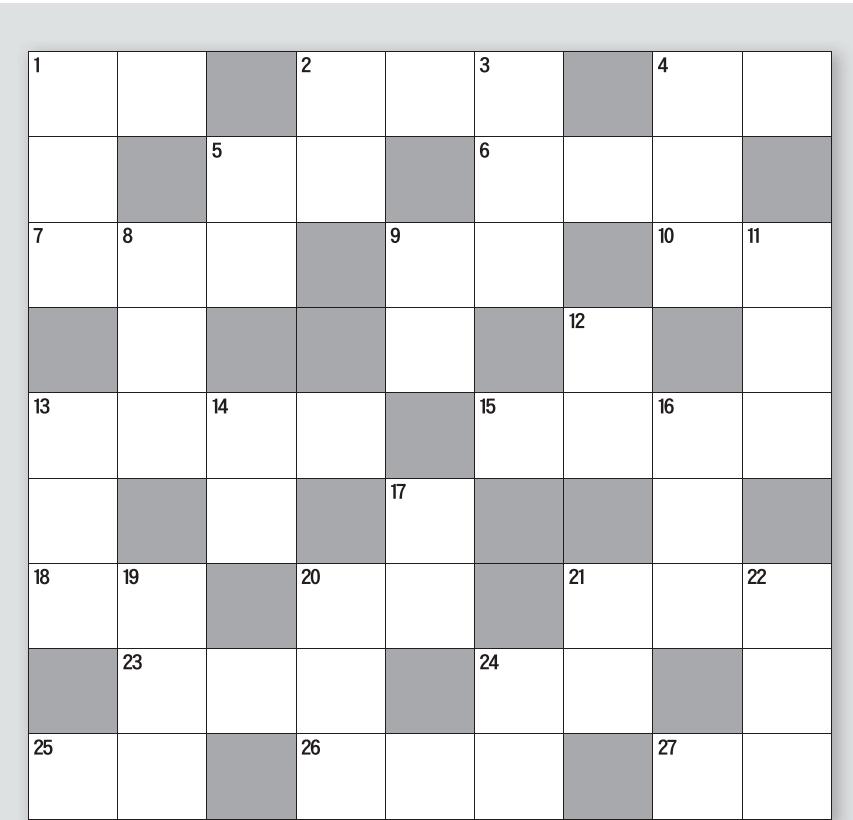
Joy: I'm going to the mall. Do you want to tag along?
 조아: 난 쇼핑몰에 갈 건데. 같이 갈래?
 Brad: To tell you the truth I'm not crazy about it.
 브래드: 사실대로 말하면 난 별로야.
 Joy: Why not? You usually want to go.
 조아: 왜? 보통 당신 가고 싶어하잖아.
 Brad: Since it's been under construction half of the stores are closed.
 브래드: 공사 시작한 후론 상점 절반은 휴업중이야.

Joy: There are still a lot of stores open.
 조아: 그래도 여전히 문 연 집도 많은데.
 Brad: There aren't enough stores open for me to put up with the construction.
 브래드: 공사하는 걸 참으며 다니고 싶을 정도로 많은 상점은 아니야.
 Joy: Suit yourself. I'm not going to beg you to go.
 조아: 그럼 맘대로 해. 억지로 부탁하는 것 아니니까.
 Brad: What time do you think you'll be home?
 브래드: 몇 시면 집에 올 것 같아?

Joy: I should be back in the afternoon maybe 3 or 4
 .
 조아: 오후 3시나 4시면 올 거야.
 Brad: I'll be here waiting for you.
 브래드: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기억할만한 표현
 ▶ be crazy about (someone or something): 굉장 히 좋아하다
 ▶ "My sister's crazy about bowling." (우리 언니는 볼

링에 푹 빠져있죠.)
 ▶ under construction: 공사중이다
 "This street has been under construction for a month." (이 길은 한 달째 공사중입니다.)
 ▶ put up with: ~을 (불평없이) 견디다
 "We've been putting up with this president for too long." (우리는 너무 오래동안 이번 대통령을 견뎌 왔습 니다.)

날말퀴즈



가로열쇠

1) 쇠붙이를 곁에 붙여 지은 갑옷.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을 두른 듯 (2)위와 가운데와 아래의 세 등급 (4)나이는 약 46억 년, 표면의 70.8%를 바다가 차지하고 있다 (5)종이로 만든 주머니 (6)편프질을 할 때 물을 끌어 올리기 위하여 위에서 붓는 물 (7)몹시 슬프고 분하여 나는 눈물.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이 난다 (9)소금에 약간 절여서 통으로 말린 조기 (10)사나운 짐승이 울부짖음 (13)바람이 불면 빙빙 회전하도록 만든 장난감 (15)대대로 이어지는 여러 대의 자손. 날말퀴즈 애호가 남의 후손이 ~ 복록을 누리시기를 (18)사람을 감동시킬 만큼 아름다운 내용을 가진 이야기 (20)웃이나 이 부자리 따위를 지을 때 두 쪽을 맞대고 꿰맨 줄. 천사의 옷은 ~가 없다고 하죠(천의무봉) (21)무청이나 배춧잎을 말린 것 (23)금액을 밝히지 않고 봉투에 넣어서 주는 돈 (24)대장간에서 불린 쇠를 올려놓고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쇠덩이 (25)이행의 담보로 잡아 두는 사람 (26)두 사람이 한 성부씩 맡아서 같이 노래를 부르는 일 (27)배추를 세는 단위

세로열쇠

(1)쇠로 만든 낮가죽. 염치가 없고 뻘뻘스러운 사람 (2)예전에, 장가를 들면 머리털을 끌어 올려 정수리 위에 틀어 감아 뾰족 (3)이 앞을 지나 는 사람은 누구든지 말에서 내려야 한다는 글이 적혀 있는 비석 (4)온갖 종이를 파는 가게 (5)예 전에, 지방에서 중앙으로 올리던 물품 (8)눈덩이 두 개로 만들죠. 한겨울에 밀짚모자 꼬마 ~/눈 썩이 우습구나 코도 빼뺏고(강소천) (9)연기가 이곳으로 빠져나가죠 (11)등을 굽을 수 있게 대 나무로 만든 가구 (12)부모를 잘 섬기는 아들 (13)쌀·보리 등을 파먹는 벌레 (14)사내보다는 크지만 강보다는 작은 물고기 (16)어떤 말을 부 인할 때 손을 펴서 휘젓는 일. ~를 치다 (17)말 이나 사자의 목덜미에 난 털 (19)높은 온도에서 달군 금속 재료를 물에 넣어 급격하게 식히는 일 (20)나이가 어리고 촌스러운 티를 벗지 못한 사 람 (21)떡을 찌는 데 쓰는 질그릇 (22)겨울 철 새, 울 밑에 귀뚜라미 우는 달밤에/기력기력 ~ 날아갑니다/가도 가도 끝없는 넓은 하늘을/엄마 엄마 부르며 날아갑니다(윤복진) (24)남의 노래 를 흉내 내는 일. ~ 가수 나운아

스도쿠

	3	4	5		9		6
					6		4 8
			3				9 5
		5	4			6	9
4	6		9	8			
7	9		1	6			2
9	8	6		3	1	5	4
		2		9		8	3 1
		1	8	7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9	6	7	5	8	1	4	3
1	8	4	6	9	2	7	5	
4	7	5	1	3	9	8	6	
3	2	4	5	9	1	8	6	7
7	5	1	2	8	6	3	9	4
6	8	9	3	7	4	5	2	1
5	6	2	8	4	3	7	1	9
8	4	3	9	1	7	6	5	2
9	1	7	6	5	2	4	3	8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카드 유효기간 EXP. DATE: / / CVS: / /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옹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THE SIXTH SENSE **식스센스** 금주의주제 서비스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8월
구
인
광
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사업체 매매

이준식 부동산

- Seafood Carry Out
- Pickup Store(bowie) \$30,000
- Single House Rent \$3,200 (Catonsville).방4, 화3+1/2

문의
301-768-1240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풀타임 & 파트타임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이중언어 우대
▶무경험자 환영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구인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 ◎ 구매부 0명
- ◎ 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경험자우대

이력서:eni@enidist.com
문의
301-477-4710

롯데플라자 스티어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티어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쉬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주세요!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이웃을 돕는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کم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앤틱 한국 수출 관심있는 분

빈티지 & 앤틱 가구, 전축, 차이나셋트, 정원용품 등
1900-1950 년도 까지 물품들 무역, 수출 원하시는 분
고정 거래처 있으며 현재 월 한 컨테이너 (40')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Manassas, VA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고객만족!
준비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집 파실 분 - 셀러 스페셜!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최고가 판매 전문 노하우

1. 집값 - 셀러레포트
2. 홈 인스펙션/Class A Contractor
3. 지붕, 거러, 인스택션
4. 히팅/에어컨 인스택션
5. 터미이트 검사
6. 홈워런티
7. 현재 소유 보험 리부
8. 크레딧 리부, 관리 방법

모든 비즈니스 장소
찾아드립니다 (매매/리스)

태권도장, 그루밍, 식당, 치킨, 베이커리, 당구장, 바버, 델리, 요거트, 카페, 병원, 치과

센터빌 미용실 \$90,000

재투자 상담
1031 Exchange Specialist

부동산 장기 투자해서 매매시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담되실 때

매일 새벽 "황계실 부동산 생생 정보"를 이메일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세요. kakaotalk ID: Gyeshilhwang email: jkim0825@gmail.com
① 프로협상전문가 ② 공격적 마케팅전문가 ③ 24/7 언제든지 연락가능 ④ 신속 정확한 일 처리 ⑤ 대기셀러/바이어 다수 보유 ⑥ 클로징 후 철저한 지속 관리

부동산 전문 브로커 **황계실 571-239-6054**
GSHwang Realty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8월 22일 목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로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C13



독자가 행복 해진다!!

메릴랜드지역

직원 모집

▶▶MD Montgomery 및 PG County에서 식당장비 세일즈 구합니다. 경쟁력있는 보수(커미션), PEPCO 등 정부보조프로그램 또는 다른 분야의 대면 방문 세일즈 경험자, 경력자 우대(기본급 및 경비 지원) 초보자 세일즈 트레이닝 및 각종 지원 제공 (Case by Case) edk.tre@gmail.com으로 자기소개와 함께 지원 바랍니다. 571- 332-2101(문자요망)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경험많은 Handyman-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 관리자*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타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함. albert@w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롯데플라자 마켓 분사 승원유통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위치: 메릴랜드 재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업무: 사무직원(서류관리 및 인보이스등)
-시간: 주 32~48시간(주 5일 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모집
-업무: 현장 직원 관리 및 입고출고 관리
-시간: 주 48~52시간
-유경력자 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병원/한방/덴탈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 콜럼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요양원에서 일하실 풀/파트 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컷시티 240-426-5678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력자 우대. 속식도 가능. 410-961-3012

1)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Germantown/MD
2)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3) CAD/CAM 파트, 테크니션 구함
4)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직원 구함 (풀타임/경력자 우대) 저먼타운 MD 240-477-5683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식당/델리

▶▶엘리컷시티 장수 설렁탕에서 새가족을 구합니다 주방/케슈어/경력자 우대 410-750-3333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 사시 & Fried Chicken 파트/풀 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엘리컷시티 Cafe June에서 샌드위치 싸실 분 유무경력자, 풀/파트타임 443-386-0515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기타

▶▶픽업바느질 하실분(파트타임) / 엘리컷시티 410-926-3200

운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으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엘리컷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커니,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MD 아류델빌 샵센터 근처에 위치한 무궁화메디컬 데이케어에서 풀타임 운전 하실분 구합니다. 443-621-2625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지휘 경력) -서류: 이력서 신상고백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싱글/타운방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교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룸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문자요망)

▶▶ 조용/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한 아름 메트로 근처 싱글룸 방 1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301-655-324

▶▶MD 실버스프링 Calverton(교통편리), 싱글룸, 큰방, 욕실, 유포, 인터넷, 가구, 금연, 301-648-2422

▶▶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 완비/냉장고별도/샤워별도/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연자 240-418-2738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세 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 지하방2. 출입문별도, 부엌, 욕실, 거실등, 저먼타운 메릴랜드 (롯데마켓 5분거리) 문자요망 202-985-919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1. 메릴랜드 자이언트열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구인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Community Service Clerk (Church): Do clerical assistance for the outreach ministry. Reach out for Mongolian communities for Mongolian communities to find out needs for caring. Do administrative coordination for the community service, food distribution and homeless ministries. Visit locations within Arlington County and its BLS area. 40hrs/week, Tue - Sun. Associate degree in business or equivalency req'd. Send application to Employer & Job location: Arlington Assembly of God at 4501 North Pershing Drive, Arlington, VA 22203

애난데일.시원한 사무실서 파. 풀타임 근무 하실 분. Junpark9@hotmail.com 571-242-3736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력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h123@gmail.com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금 휴가, 건강보험/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력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컷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256-0606

버지니아 지역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롯데플라자마켓 분사인 승원유통에서는 그래픽 & 웹디자이너를 구합니다. ■모집부서: 그래픽 디자이너 / 웹 디자이너 ■근무형태: Full Time (Mon.-Fri.: 7:30AM - 5:00PM) ■근무지: 승원 분사 디자인실 (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으로 Resume와 포트폴리오 첨부

유재신 회계사 애난데일 공인회계사 사무실 경력자우대, Benefit, 영주권스폰서 가능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분 이력서: acct.one3@gmail.com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집입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 휴가 등등), 영주권스폰서 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I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키징/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m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 / 풀타임 직원모집 학생 및 유/무 경력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능자, 취업비자/ 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 경험 필수 -1년 이상 회계업무 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 통역 매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 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약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업 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다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콘도 4채 매매 렌트수입 증음!

- 교통 편리한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000/m
- 매매가: \$515,000 Cash Only

AGENT 환영
문의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22일 목요일 중앙일보

JTBC-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에서 '행정·코디'를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근무조건: 풀타임
-근무내용: 워싱턴 총국 행정, 취재 코디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정 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o.kr

버지니아 한의과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마사지사 구합니다.
- 타이슨스 코너 5분거리
-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 571-243-4251
센터빌, 찬들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급, 센터빌/찬들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시/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u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 703-256-3005/703-830-099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703-850-1100/703-963-1234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 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 가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 703-657-0944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식품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텀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캐쉬어 구함(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알락탕'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숙소 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
요.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헌돈 H-마트 인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미국 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험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식당/델리/제과

▶▶ Honest Grill 에서 파트타임
Host/Hostess 구합니다.
영어 필수.
703 - 543 - 2320

▶▶ 텍사스도넛센터빌 베이커보조 구함(아간)
영주권 스폰서 가능
703-462-4349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이·미용/네일/마사지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 토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찬들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는
(571)215-6767

찬들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는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셔니스트
구함(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풀/파트타임 이발사 구함.
703-408-1119

세탁/엘터레이션

▶▶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베킹, 프레스,
빨래 /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픽업 스토어에서 필요물품가게 크로즈로
판매. (컴퓨터, 엘터레이션 장비등 일체)
571-224-7777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 지역 세탁소 픽업스톨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 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자동차 정비/바디샵

▶▶ 자동차 정비 매케너 구함.
Alexandria, VA (문자요망)
703-887-5355

찬들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너, 준메케너, 헬퍼 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
클리닝)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703-678-1749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 301-537-3800

No.1 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 571-591-4455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
턴), H-1B Transfer 가능
▶ 이력서 제출: raphael@ccdc.edu
www.ccdc.edu

기타 구인/구직

버크 태권도 사범 구합니다 풀타임 \$50,000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문자요망)

▶▶ 노임 전문 변호사 구함
체불임금 80만불 받아내면 50%씩
나눠 가지기로 합니다.

Looking for a lawyer specializing in
labor. If we receive \$800,000 in unpaid
wages, we will split 50% each.
▶ Glimck2@gmail.com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
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
전공자 &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 (풀/파
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집안일 도움주시고 운전 가능하신분 구합니
다. 월-금, 오후 3PM - 7PM
센터빌 롯데 부근입니다.
703 300 1048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홀출아서해주시분
(703) 473 6022.

버지니아에 있는 꽃집에서 디자이너와
헬퍼를 구합니다. 유, 무 경력자 환영
240-393-2773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파트타임 구함. 이중언어 되시는 분
은퇴하신 남녀노소 환영.
703-424-8596

필그림유치원 교사 모집
토틀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애난데일 인쇄회사 풀/ 파트타임 구함.
컴퓨터관리/ 고객마케팅관리 하실분.
신분 무. 재택 NO
E-mail: newsunny77@gmail.com
571-242-3736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입니다.
-최저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력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 싱글홈 지하 렌트 워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킴, 단독샤워, 와슈어,
66번가 가까운 페어팩스, 지하 출입문 별도
▶ 703-489-6926

▶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 703-231-5572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5.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 703-477-3114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 잔디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교 좋음)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3개, 화4개, 2가 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차고 두개 짜리) 사고저하는
분 연락주세요.
연락전화: 571-277-7758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콘도 렌트

▶▶ 애난데일 콘도 방2 화장실2,
밝고 넓은 리빙룸. 큰방2, 나무마루,
엘리베이터. \$1,900(물값과 가스비 포함되
어있음). H-Mart 가깝음. 교통편리.
703-477-3114.

▶▶ 애난데일 H MART 옆 콘도 렌트
\$2,300 방3개 화장실2, 유포. 전기만 별도
9월말 입주 가능
703-350-1986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깝음, 전용주차장 2대, \$2,200
▶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게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 703-477-3114

방 렌트

▶▶ 센터빌 타운하우스 2층 작은 방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하여 매매 가격 산정
2. 정확한 매매 상황과 매매 조건 유동성
3.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 고용
20년 경력으로 남보다 2배 더 뛰는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CoStar GROUP POWER BROKER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8월 22일 목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 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계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여학생 환영. 유포 \$800
▶703-489-6926

▶▶센터빌 방/욕실/화장실 1 세놓음 문자 또는 전화주세요!
703-470-5655

▶▶Annandale 방 렌트: townhouse 밝고조용한 뒷방 or walkout basement with a private bathroom, 마루, 유포함, 교통편리함 여자분 원함. 문자보내주세요.
571-345-8879

▶▶아난데일 노바 3분거리. 조지메이슨 대학 5분거리, 반지하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가능.
703-598-6087

▶▶1. 아난데일 한강식당뒤 개인집방 렌트 화장실/입구별도 9/1일 입주가능
2. 타이슨지역 개인집 지하방
703-395-4380

▶▶첼러리타운하우스 반지하 워아웃 인터넷, 가구, 가전, 주방일체 포함 \$900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571-429-2222

▶▶열린문 교회 근처 싱글하우스방 세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조지메이슨 노바 5분거리 반지하 \$900/부엌/화장실/출입문 별도/마루바닥/유틸리티포함/문자요망
703-598-6087

단독주택 지하방 1, 욕실, 세탁기, 거실, 인터넷, rt 50, Parkway 286, H mart 10분 거리, 롯데, Fair Oaks mall, Inova 병원
571-236-0834

Fairfax VA 비엔나전철역 근처 66도로 495도로 2분거리 직장인 환영
703-419-0337

▶▶싱글룸 지하렌트 조지메이슨 근처 워아웃, 방 2, 거실, 화장실, 풀키친, 워셔드라이어
703-898-3838

Burke H-Mart 10분거리 2층 타운홈 취사, 가구 즉시 입주 가능 방 1 \$600 방 2 \$1000 여자분 한함/문자바람
703-678-7833

▶▶아난데일 예촌근처 반지하 전체 방 1/ 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703-629-6275

▶▶아난데일 홈디포 근처 방 렌트 유포
703-598-5719

아난데일 메시아 장로교회뒤 지하방/유포
703-887-5173

개인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개인 주차자리도 있습니다.
571-232-6052

애난데일 지역 싱글룸, 방 1 개 렌트
▶703-470-5238

단독주택 출입문 별도. 지하방 2 부엌 거실 욕실 등(문자요망)
202-985-9191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 문자주세요)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콘도렌트 \$1,900 Springfield 아난데일 10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층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1.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룸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 주택, 방 4, 화 4, 편리한 램블러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 4, 화 2½, 1,612sf., 교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000/m - 매매가 \$515,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펄,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 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 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 car 거라지
4. 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옆 좋은 위치 싱글룸 유희방 3개, 화 1개, 부엌, 리빙룸, 다이나밍 / 아래층 방 2개, 사무실, 화 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부동산/상업용 매매

▶▶앤지 부동산 파고 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위해 함께 고심해드립니다
571-550-7658

▶▶리커 | 식당 | 카뮈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는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Seafood 매매 Woodbridge VA \$165,000, Open: Mon-Sat (6일 근무) 자기사업에 관심있는 분 연락주세요!
703-967-3963

이준식 부동산
1. seafood carry out
2. pickup store(bowie) \$30,000.
3. single house rent(Catonsville) \$3,200. 방 4 화 3, 1/2
▶703-768-1240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펄물,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메릴랜드 로럴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 SF, 28 당구대 완비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DC.리뷰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 2400/SF 1.2층, 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 40년 경력
▶▶703-569-80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청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세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 장소: 버크레이크 헬드 / · 시간: 일 아침 9시 - 속속 걸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워킹클럽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장기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립니다.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노바대학교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촌 2분거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방문 확인!
▶571-278-8811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신선한 야채 배추, 무, 갓, 알타리무를 농장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신속 정확하게 공급합니다. 교회, 식당환영
240-796-0093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미트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중고품/기타매매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무빙세일 역 이민 가구 및 생활용품을 정리, 냉동고, 컴퓨터, 옷장, 히터, 세탁장 외...
703-203-5177(3시 이후 전화요망)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송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HD Plus Construction 밀웍사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록젝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페인팅(In, 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디맨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손사이드 / 매케닉 크루 703-955-2827 / 540-680-1571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 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이웨이에게 워싱턴 한인 전문 용자회사 - 낮은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상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테리어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달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카펫, 에어덕트 클리닝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티프닝,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풀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세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체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달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선박, 확실한만족, 귀국이 샅집 포장이사, 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탕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절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박-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703-929-9601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 Window 삼정,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차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샤워도어, 자동차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구독: 703-281-9660,1

생활안내 703-281-9660,1(문자)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지요?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벽,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욕실·주방 리모델링 전문

▣ 마루·텍·케비넷 샌딩 보수

▣ 타일·목수·HoA 지적 신속 수리

▣ 핸디맨·플로잉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Movers LLC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소독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건축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쥬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프,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애틀랜타 **일본식당 구인**
 *데빵 셰프 0명
 *스시 셰프 0명
 유경험자
 침식제빙(결빙)에서 출퇴근 거리
 알라바마 관광지역
 T.251-968-2525
 256-653-1970

구인

Sales Manager:

Direct sales activities:
 Bachelor's in Business
 Admin, or related req'd.
 40hrs/wk: Apply to
MOORIM USA, INC.,
 3700 Crestwood Pkwy NW,
 Ste 200, Duluth, GA 30096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Hello Town
 미국 생활에 대한
 고질적인 리얼정보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까지
 All about US Life!

구인

RENT

렌트
 부동산

미국
 라이프
 모든 것

자동차

전문업체

문의 213.368.2525

us.srotech.com
charcoal cedar 친환경탄소복합소재
건식온돌 난방
진짜가 나타났다
 전통온돌의 우수성을
 재현한 조립식
 구들장입니다.

너무나 쉬운 설치
시공 영상
 시청하세요~
 us.srotech.com
 *지사 및 대리점 모집
 문의 510-381-0301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 허위트리

개인 / 비지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험트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산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오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퍼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 비아그라 효과 없는 남성도 30분 전에
1알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강직도 · 지구력 단번에 해결, 만성 발기부전,
 전립선비대증, 고혈압, 통풍, 근본 원인 치료
 남성용 1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남녀공용 성욕 강화제 유희유
1-213-210-9720/papaaaa.com

Partial & Denture
플타임
 N.캐롤라이나주 샬럿 지역
704.806.3068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에서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매달리치마 살매
최종산상
 Up to 40%
 핫산상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흡제인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견산상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 · 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중풍 ·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성민산삼한방병원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전립선
온열치료기 J2V-N
www.j2v.co.kr
 전립선암 예방 및 치료 효과
***30일 전액 환불제 실시**

- 가정에서 간편하고 편안하게 경제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 100대 우수특허대상 (생명공학 부문) 수상
- 경화되고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체를 정상상태로 회복시켜 줍니다.
- 야뇨, 잔뇨, 빈뇨 증상에 특히 효과적 입니다.
- 약물치료로 효과보지 못하신 분
- J2V 전립선치료기는 안전한 물리적 치료방법으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신제품

전립선 온열치료기 새롭게 나왔습니다.
치료기능 향상 | 충전량 표시 | 약정화면 향상

드림바이오메디칼 (714)926-4607 7011 Warner Ave #E Huntington Beach CA 92647

김 공급 및 가격으로 힘드시죠?

청해김

안전 | 인증 | 최고 맛 | 최저 가격

전국 최저 김밥김/스시김 한국산 취급 중국산 취급

한국산 고급 POS 종이 (한솔제지 최고급)
 식당용 고급냅킨
 고급 대나무 젓가락 커스텀 디자인 제작

Hansol (50roll / Box)
 (2Ply 3,000장)
 Tenso 9.5" (2,000개 / Box)

ONE STOP 서비스로 POS 용지와 냇킨과 커스텀 젓가락 디자인 취급합니다.

■ 김밥용 전장김 (100장, 50장) ■ 일식당용 반장김 (200장, 100장)
 청해김은 2015년부터 DOKDO SUPPLY 회사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고급김 Brand로 현재 남가주에서 500여 곳 및 전국 일식당 1,000여 곳에서 애용되고 있습니다.

독점 FAIRFAX 타운홈

4층 구조 엘리베이터 시설,
2 Car Garage, 방4, 화장실 5
2013년 새로지은 럭셔리타운홈,
골프코스 전경 **\$1,335,000**



Contract

독점 FAIRFAX 타운홈

방3, 화 2½, 업데이트된 부엌,
밝고 환한집, 새페인트, 나무마루,
NEW DECK, 워아웃베이스먼트 **\$600,000**



Contract

독점 ANNANDALE 콘도

완전히 리모델링한 넓고 환하고
깨끗하고 예쁜집, 방3, 화1/1. **\$375,000**



Contract

독점 Woodbridge 타운홈

방3, 화3, 2 Car Garage,
End Unit, Update Kitchen,
새 페인트, 밝고 환한집 **\$549,900**



Contract

독점 RESTON 타운홈

리모델링한 넓은 텍과 아주 환한
깨끗하고 예쁜집, 방3, 화1/1. **\$479,900**



Contract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